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문화센터의 신학적 해석과 시대적 역할

A STUDY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CULTURAL CENTER IN CHURCH FOR LOCAL COMMUNITY

By

Moon, Jung Ung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Manhasset, New York

2013

ABSTRACT

A STUDY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CULTURAL CENTER IN CHURCH FOR LOCAL COMMUNITY

by

Moon, Jung Ung

No one live apart from the culture. Even if only two people live in the earth, each other make language and culture. Many churches were interpreting culture is separated secular and holy things. But we could not clearly divide each area. Eventually culture is changed and created and interpreted by humans. If we are lazy or neglect the study of the culture, we will be decreased continually. Assessment standards of the Church, of course, the greatest needs faithfulness than the cultural and ethical integrity. Most of people want church to be light and in the light. As the light in the darkness, the church needs high responsibility and role in world culture. The ship to sail the sea see the lighthouse to reach the destination as the church can become a beacon of culture. The church has the exclusive attitude from the point of view of cultural issues. To live the real life an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church pastor or church board members dealing with a cultural experience within society and can be far from the story. The Cultural Center of the ministry for the church community achieved the various performance. In the Friday our church have prayer meeting and service. But children could not attend that time

which is very hard time for kids. Example Kids who born in United State of America could not understand Korean sermon. So we could not manage for them by korean service. But we can give great chances to kids who follow their parents. If Church make Cultural Center then Parents can be in worship service with peace. Some ones who had good talent but never use before they can involve by Teacher. The church can manage instructor between church members. They have chance to use their talent and student can learn anything by low price. Also we can have a chance to give a good image for people who have a negative image for the church. Ths church spent nothing. Just finding lecture which people need and give a space. Every thing developed it self. Our church have great result by Cultural Center. I expect that many churches will help to apply this advantage work.

감사의 글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공부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부족한 저의 논문을 지도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임희관 교수님과 처음 미국에 발을 디딜 때부터 이끌어 주신 백창건 교수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옆에서 힘을 주고 용기는 나의 가장 큰 동역자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보석 같은 아내 고수현 사모와 넉넉하지 않아도 늘 웃어주는 사랑하는 딸 예주와 논문을 쓰는 동안 어려움 속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주는 막내 예나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도 강단의 설교를 통해 아들을 격려해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문수근 목사님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전순희 권사님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문영재 목사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지켜준 고은미 사모와 사랑하는 예목이 그리고 사랑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고진곤 장로님과 사랑하는 어머니 김명희 권사님 그리고 늘 기도하는 고석붕 형님과 권세라 고찬영 그리고 함께 기도로 뉴욕주나목교회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후 2013년 5월 문정웅

목　차(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기술이 발달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은 문화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문화를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사는 것과 같다. 단 두 사람이 함께 산다 해도 서로 소통을 위한 언어와 성별과 지역과 시대에 맞는 문화가 존재하게 된다. 이 문화를 세상이라고 표현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마치 문화를 해석함에 있어 세속 혹은 타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따르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도 문화가 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문화는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변화되고 오염되고 해석된다.[1] 교회가 문화를 연구하는데 게으르거나 등한시 한다면 결국 새롭게 변하는 시대의 문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기보다 도태되는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교회의 평가 잣대는 문화보다 윤리적 고결함과 신앙적 신실함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적용한다. 그러나 이는 성직 혹은 성도라는 명칭 아래 사회가 교회에게 기대하는 문화적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다면, 이것 역시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문화 속에 교회의 역할은 빛이다.[2] 세상도 그것을 기대한다.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하듯이 세상 문화 속에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등대를 보고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교회는 문화의 등대가 될 수 있다. 단지 세상 속에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문화적인 접촉점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배타적인 태도이다. 특히 교회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회자나 교회임원들이 경험한 안에서 문화를 다룬다면 실제 살아가는 생활과 사회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세상의 문화를 좇아갈 수는 없지만 모르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고 점점 떠나가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1]Sherwood Lingenfelter, *Transforming Culture,*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21.

[2]마태복음 5:14.

교회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교회의 태도의 변화는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변하였다해도 세상에 알리고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에 대한 고민과 연구의 필요성은 이미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연구한 장례 예식을 통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진행하였다. 이에 그 연장선상에서 실제 이민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한 문화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뉴욕주나목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 센터 사역의 실천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교회의 금요예배 시간에 맞추어 동시에 운영함으로서 평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예배와 교회 활동에 참여가 어려웠던 학부모들에게 아이를 교육과정에 넣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 특별히 이번 계기로 문화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교회의 내부에서 먼저 모집한 결과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우들이 기회가 없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다. 강의자는 강의자대로 봉사의 기회가 되고 아이들은 낮은 가격으로 평소에 부담이 되어 배우지 못하였던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양쪽이 다 만족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회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공간만을 활용하여 이미지 개선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속과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등 장점을 발견하고 활용하였다. 많은 교회가 적용하여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1. 배경소개

1) 뉴욕 주나목교회 소개

(1) 지역적 배경

뉴욕주나목교회가 있는 Manhasset (이후 맨하셋으로 표기) 시는 뉴욕주의 Nassau County(이후 낫소카운티로 표기)에 있는 지역으로서 약 2.4 sq mi (6.3 km2)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는 물이 0.0 sq mi (0.1 km2)로 거의 없고 지역의 높이는 95 ft (29 m)로 지대가 낮지 않다. 인구는 2010년 조사에 의하면 총 8,080으로서[3] 인구밀도는 3,505.8/sq mi (1,353.6/km2) 이다. 뉴욕 주의 Long Island(이후 롱아일랜드로 표기) 안에 낫소카운티가 있고 이 속에 맨하셋이 속해 있으며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Queens(이후 퀸즈로 표기)지역과 가까워 한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특히 퀸즈 지역에 많은 아시아계와 동남아계 사람들이 이주하여 들어옴에 따라 이곳에 살던 한인들은 점점 롱아일랜드에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더 멀리 이주하고 있다. 특히 롱아일랜드 지역은 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고, 이에 따른 좋은 학교가 많아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의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여 이 지역 한인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통 역시 Long Island Rail Road (이후 LIRR로 표기) 가 있어 Manhattan (이후 맨하튼으로 표기)까지 기차로 30분 정도의 시간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맨하튼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지는 여유로운 친자연환경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맨하셋은 다른 롱아일랜드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공간과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세계 명품과 여러 브랜드가 모여 있는 아메리카나 쇼핑 센타 등 중산층 이상의 생활수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조금 비싸도 여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맨하셋은 퀸즈와 분리된 개념보다는 퀸즈 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을 통하여 효과적인 것을 골라서 활용한다.

[3]http://en.wikipedia.org/wiki/Manhasset,_New_York (accessed Sept 8, 2012)

(2) 역사적 배경

2010년 9월16일 뉴욕은혜교회에서 뉴욕주나목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재 창립하였다. 이전 뉴욕은혜교회는 맨하셋에 위치한 한인교회로서 2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뉴욕주나목교회는 장로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미국장로교)소속이다. 신앙은 철저히 보수적이면서 문화 사역을 통한 시대적 요구는 유연하게 수용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와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며 성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성인 60 여명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40여명으로 구성되어 100명 정도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있으며 예배와 양육과 사역과 선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교회이다.[4]

(3) 상황적 배경

뉴욕주나목교회는 루터란 교회를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다. 새벽예배와 금요예배와 주일예배 시간에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집값이 비싸고 한인들이 들어오기에는 힘든 지역이지만 롱아일랜드와 퀸즈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자가 차량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주차장이 넓고 건물이 편리하여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차가 없는 교우들은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예배가 있을 때에는 밴 운행 서비스를 통하여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형적인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교육부의 성장이 크다. 교육부의 성장에 발맞추어 1층 교육관을 2012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문화 예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주 팀과 알차게 운영되는 성가대가 있다. 연주 팀은 특별히 절기가 되면 연합예배와 칸타타 그리고 콘서트를 통하여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Tanzania와 Philippines그리고 Guatemala 를 후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시작한 Arizona 사막의 인디언 선교는 뉴욕 주나목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꿈꾸며

[4]2012 뉴욕주나목교회 요람, 18.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교육부와 연령별로 구성된 공동체의 틀이 완성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새가족부와 문화 사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뉴욕주나목교회의 특성에 맞춘 교회 운영이 연구되고 있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역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기독교 문화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야 말로 젊은 세대가 준비해야할 미래의 모습임으로 인지하고 이를 통하여 교회의 창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뉴욕 중앙일보와 함께 운영하는 롱아일랜드 문화센터와 한글학교 그리고 합창 교실 등은 소형 교회로서 비전이 없이는 운영되기 힘든 것이지만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문화 목회의 교회 비전이 명료해지고 있다.

2. 교회 문화센터 연구의 목적과 목표

1) 연구목적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화적인 프로그램에 접근이 어려운 아이들과 시기를 놓쳤지만 여전히 자신의 꿈을 실천해 보고 싶은 성인을 위하여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문화센터를 통해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통한 이미지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다. 내 교회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가 불가능하다. 문명화 자체가 복음화가 될 수는 없지만 선교사들의 사회 선도적 노력은 이미 기독교 문화가 삶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5]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서 자리를 잡은 것은 단지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지성과 삶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는 이성에 의한 계몽주의적인 일환으로 보이나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문명화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기독교 선교사나 단체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나 병원이 지역 사

---

[5] David J. Bosch, *있는 선교*, &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451.

회와 국가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이제는 오히려 기존의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사회 속으로 들어가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행복과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화라는 영역자체는 삶과 분리 할 수 없는 영역이며 또한 그 다양성은 한곳에서 감당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먼저 뉴욕주나목교회에서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이에 따른 성공적인 부분과 보완해야할 부분을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많은 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 하는 것이다.

2) 연구목표(Object)

(1) 의식 변화

의식변화의 목표를 통하여 목표점의 시작을 보다 더 명료하게 하며 출발한다. 첫째는 뉴욕주나목교회의 세대간의 문화 의식변화이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른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문화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다르다. 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서로를 배우고 함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이를 배타적으로 처리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 이는 지금 한인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영어권에서 자란 아이들과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의 괴리감은 반드시 극복해야할 숙제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결국 문화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올바른 접근이다. 문화 의식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각 세대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가족의 의식변화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가족 안에서 문화적 의식이 시작된다. 아이와 부모와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가장 처음 접하는 가족 안에서의 문화적 의식이 소통된다. 만약 이 소통이 원할 하지 않으면 사회로 들어가 타인과 함께 형성하는 공동체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문화적 동일 관심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각 세대 내에서의 의식변화이다. 가족 단위가 아닌 같은 동일 세대 사이에서도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 따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이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문화 사역이 필요하며 결국 한 문화는 한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 공동체성을 더 강하게 한다. 문화 의식을 분명히 하여 각 세대가 서로의 특성을 인정해주면서 또한 공통점을 발견하고 적절한 표현 방법을 만들어 내면 문화를 통해 의식 변화를 가지게 된다.

넷째는 지역사회에 의식변화를 목표로 한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문화 축제를 1회 실시하여 효과적인 의식 변화를 기대한다. 자신이 준비한 것과 또한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이 어우러져서 한곳에서 다양한 세대 간 문화 접촉이 일어나고 이는 자연스럽게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한다. 이를 통하여 개인의 영역에서 확장되어 지역사회의 의식변화까지도 영향을 나타낸다.

다섯째는 문화에 대한 태도의 변화다. 우리는 배타적인 문화 의식이 아닌 수용적인 문화 의식을 가져야한다. 이는 다원적인 수용이 아닌 오히려 선별적 수용이다. 보다 깊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 의식이 필요하다.

의식 변화는 문화에 대한 긍적적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다. 결국 문화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모여 행동으로 이어지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선행되는 목표로서 문화 의식의 변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2) 행동 및 실천 변화

행동과 실천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론으로 끝나게 된다. 문화 의식의 변화가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적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는 설교를 통하여 문화 의식의 필요성과 문화적 세대 공감의 중요성을 전달함으로써 교회가 해야 하는 문화적 이슈들이 성경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전달한다. 교회의 비전과 방향이 제시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므로 모든 내용에 있어 성경적인 중심점을 잃지 않게 한다.

둘째는 문화 활동을 통하여 내부적인 협력을 가진다. 내적인 결속력이 없이는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이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교회 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천 방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진행한다.

셋째는 문화학교를 통하여 영적 가치관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식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한다. 문화학교에서 세대별로 또한 관심 별로 다양하게 진행하여 각 프로그램 마다 특성을 살려주고 또한 이것이 갖는 장점들을 잘 진행하도록 한다.

넷째는 예배 자체에 문화적인 요소를 수용한다. 예배의 구성 요소는 설교만이 아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한 다양한 순서들이 있다. 이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문화적인 방법을 수용함으로서 지역과 시대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다섯째는 주일 예배 후에 전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이를 통하여 먼저 내부적으로 세대 간의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여섯째는 양로원 방문 등 지속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사랑과 나눔의 활동을 진행한다.[6]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실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감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한결 같은 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3) 구조 변화

구조변화는 결국 앞서 소개한 의식변화와 행동 및 실천 변화를 통해 .

첫째는 예배부서를 문화적 요소를 강화하여 새롭게 구성하여 교회 조직의 보이지 않는 일부가 아닌 실제적으로 중요한 조직이 되게 한다. 여기서 문화 예술인을 위한 조직, 참여하고 활동하는 조직,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조직이 되도록 담당자를 둔다.

둘째는 행사부서를 강화하여 문화적 요소가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모두 실행되도록 한다. 특히 행사에 쓰이는 특별 순서의 질을 높여 전체적으로 예술적 수준과 가치를 창조해낸다.

---

[6]Helmut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07), 91.

셋째는 문화학교를 신설한다. 문화학교를 통하여 재능 있는 성도들이 이를 배우거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사교육이 비싸지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제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평소 노인 들이 가르치거나 배우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린다.
넷째는 교회의 리더 그룹을 젊은이들도 함께 결성한다.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 그룹의 구성원의 성향이 중심 프로그램에 크게 나타나게 된다. 리더 조직 자체에 여러 문화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한쪽 세대에 치우침 없이 전 세대의 문화를 균형감 있게 교회의 구석구석에 적용한다.
다섯째는 외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든다. 기존에 잘 진행되는 기관과 연계하여 교회에서 운영이 가능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회와 사회의 경계선을 신앙 외에는 너무 높게 하지 않는다.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 불신자들도 친근하게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든다.

3. 교회문화센터 연구과정

1) 의식변화 실행 일정

문화센터 팀조직을 만들고 연구와 더불어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의 실제적인 이미지 개선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세우고 진행한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물 일 수 있다. 그러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이후에 일어날 행동이나 구조의 변화를 시작 할 수 없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동기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뜻만 좋은 것은 또한 피해야한다. 지역 사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다른 문화센터와 경쟁 관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문화센터가 일반 문화센터가 아니라 교회의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사랑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놓칠 수가 있다. 이를 위한 실천 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 의식변화 실행일정표

기간 (Jan.~Dec., 2012)			연구활동	연구조사활동	비고/참고
의식변화	1월	1-7 (일~토)	문화비전발표	교회 1년 비전에 문화목회 발표	presentation
		8-14	비전 쉐어링1	비전 선포에 다른 각 부서별 변화계획1	
		15-21	비전 쉐어링2	비전 선포에 따른 각 부서별 변화계획2	
		22-28	문화팀 모집	변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함께할 자원자모집	
	2월	29-4	문화팀 구성	선교부서에 문화사역팀 구성	Team Meeting
		5-11	합창단 시작	어린이 합창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2-18	한글학교 시작	어린이 한글학교를 시작한다. (3달)	
		19-25	퀼트교실 시작	성인 대상 퀼트교실을 시작한다.	
	3월	26-3	문화시설 확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간확보(1층 렌트)	방문
		4-10	현장방문1	기독교 문화 프로그램 운영기관 방문	
		11-17	팀정비회의	진행 중간 점검 및 프로그램 확대 회의	
		18-24	현장 방문2	일반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설기관 방문1	
		25-31	현장 방문3	일반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설기관 방문2	

2) 행동 및 실천변화 실행일정

실제 준비기간을 통하여 내부조직을 만들고 팀별 비전과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진행을 시작한다.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도중 자료 보관과 팀원 확보 및 관리 부분에 꼼꼼하게 진행한다. 행동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의 증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프로그램이 내부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을 동시에 가져오는 효과를 위하여 운영진의 무리한 진행과 추진을 피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성장한다. 특별히 봉사를 통한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첫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한다.

표 2 - 행동 및 실천변화 실행일정표

기간 (Jan.~Dec., 2012)			연구활동	연구조사활동	비고/참고
행동 및 실천 변화	4월	1-7	외부협력 준비	기관과 공간 활용에 대한 회의	
		8-14	외부기관 협력	뉴욕중앙일보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15-21	외부 광고	뉴욕중앙일보를 통한 광고 시작	
		22-28	외부 광고	뉴욕중앙일보를 통한 광고	
	5월	29-5	발표회	1차 진행한 문화 학교 발표: 세대공감 콘서트	
		6-12	문화센터 준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13-19	문화센터 준비	교회기관과 뉴욕중앙일보의 협력운영	
		20-26	문화센터 준비	샘플 강의 시작	
	6월	27-2	문화센터 운영	성전꽃꽂이 스포츠댄스반 신설	
		3-9	문화센터 운영	기존반 중간 점검	
		10-16	문화센터 운영	어학반 신설 (영어, 스페니쉬, 중국어)	
		17-23	문화센터 운영	중간 점검	
		24-30	문화센터 종강	2달 단위로 운영 점검	
	7월	1-7	방학/문화콘서트	교회 내 각부서별 발표회	
		8-14	방학	교회 부서별 정비	
		15-21	문화프로그램 단기선교	선교에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아리조나 주에 나바호네이션 인디언 마을에 국악, 태권도, 성경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다.	
		22-28	방학/교회프로그램		
	8월	29-4	문화센터 광고시작		
		5-11	문화센터 광고		
		12-18	회원 정리	2주 전에 등록을 마치고 운영계획 수립	
		19-25	기획회의1	문화팀 운영회의	
	9월	26-1	기획회의2	문화팀 운영회의	
		2-8	문화센터 개강	뉴욕중앙일보와 협력하여 운영	
		9-15	문화센터 운영	협력운영	
		16-22	문화센터 운영	협력운영	
		23-29	문화센터 운영	협력운영	
	10월	30-6	문화센터 운영	협력운영	
		7-13	문화센터 운영	각 팀별 진행사항 발표	
		14-20	문화센터 운영	협력운영	
		21-27	문화센터 종강	각 팀별	

3) 구조변화 실행일정

1년 프로그램으로 꾸준하게 운영하여 전체적인 통계를 통하여 매년마다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특별히 년 말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와 송구영신 등 절기에 맞는 행사를 통하여 성과에 대한 검증이 지역 사회와 교회 모두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계획한다. 그리고 외부 기관과의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과 지속 가능한 그림을 그려야한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Presentation을 통하여 평가와 감사를 철저히 하고 계속적인 운영을 기대한다.

표 3 - 구조변화 실행 일정표

<table>
<tr><th colspan="3">기간
(Jan.~Dec., 2012)</th><th>연구활동</th><th>연구조사활동</th><th>비고/
참고</th></tr>
<tr><td rowspan="10">구조
변화</td><td rowspan="4">11
월</td><td>28-3</td><td>중간점검</td><td>조직 변화 (운영하던 기반을 토대로 재정비)</td><td></td></tr>
<tr><td>4-10</td><td>문화센터 특강</td><td>년말에 가장 인기 프로그램의 1달 집중코스</td><td></td></tr>
<tr><td>11-17</td><td>문화센터 운영</td><td>운영</td><td></td></tr>
<tr><td>18-24</td><td>문화센터 운영</td><td>운영</td><td></td></tr>
<tr><td rowspan="6">12
월</td><td>25-1</td><td>문화센터 운영</td><td>운영</td><td></td></tr>
<tr><td>2-8</td><td>코스별 리포트제출</td><td>문화팀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td><td></td></tr>
<tr><td>9-15</td><td>2013년 계획회의</td><td>2013년 조직 발표시 반영하여 적용</td><td></td></tr>
<tr><td>16-22</td><td>콘서트 준비</td><td>크리스마스 콘서트 준비</td><td></td></tr>
<tr><td>23-29</td><td>크리스마스 콘서트</td><td>각 부분별 발표회로 진행한다.</td><td></td></tr>
<tr><td>30-1/5</td><td>신년최종 점검회의</td><td>문화팀의 신년도 비전프리젠테이션 준비</td><td></td></tr>
</table>

Ⅱ. 교회 문화센터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접근

1. 성서적 분석

1) 상황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영향력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문화는 특별한 영역이 아닌 삶의 부분이다. 삶 자체가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입고 쓰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각 문화마다 먹는 방법이 다르다. 서양에서는 젓가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한다. 서양 사람이 식당에서 젓가락을 쓰고 있으면 왠지 친근하다. 분명 아시아 사람들과 문화적 교류를 가지고 있으며 좋아하는 것같이 느껴지는 것도 바로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생각이다. 그가 벽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이 된다. 사랑은 실천이 없이는 전달되지 않는다. 성경에서도 고난을 당한 이웃을 생각이나 동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기를 당한 이웃에게 사회적 원조를 통해 사랑의 실천을 구체화하도록 말하고 있다.[7] 사마리아 인과 유대인 여행자

---

[7] 10:25-37,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의 사건은 성경이 말하는 계급과 인종과 문화적 장벽을 넘는 사랑의 실천이다. 실제적인 도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8] 기독교인의 사랑의 실천은 문화적인 접근과 이해를 통한 성서적 요구이다.

믿음과 선행은 함께해야 한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외식적인 행동을 경계했다.[9]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 그 행함을 나타내는 기초적 방식이 문화 속에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문화적 접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

2) 원인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구약시대의 문화에 반영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또한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거론은 많이 되지만 실제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어린이들에게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어른들의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한다면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밴드 악기 연주가 익숙한 아이들에게 오르간만이 교회에 필요한 거룩한 악기라고 강요하면서 아이들은 교회에 남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기를 받아주는 세속적인 공간으로 가고 말 것이다. 이는 소위 보수적이라는 단어로 성서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어른들의 지난 경험과 잘못된 고정관념이 원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전하고 있다. 성경의 내용은 중동 지역의 문화를 배경으로 써졌다.[10]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를 존중

---

8 2:14-17, "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9마태복음 23:3-4."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10요한복음 2:1-11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 이적에서는 당시 중동지역 혼인잔치의 문화를 보여준다.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

해 주신다. 현재 우리는 예배 때마다 동물을 죽여 피를 빼고 태우는 의식을 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 예배가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비추어 해석하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문화 속에서 성경적인 실천을 통하여 이해하고 해석한다. 오히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으셨다. 세리도 그 대상 중에 하나였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하였던 세리들이 예수님께는 긍휼의 대상이었다.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민족의 배반이요 용납 할 수 없는 죄악으로 판단되었다. 세리들은 당시 유대 신앙의 배교자로 그리고 로마인의 앞잡이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11] 이것은 비단 성서 속의 인물들에게만 있었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격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분명한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대안

성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장면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루어진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살펴보면 당시 준비된 떡을 떼시며, 떡을 자신의 몸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12] 그러나 현대 성찬 예식에 있어 떡이나 포도주 대신 식빵과 포도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 David J. Bosch, *있는 선교*, &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58.

[12] 마태복음 26:26-29.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스를 이용하는 교회가 많다. 이것을 지적하며 예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성서의 내용 중에서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원리 부분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없이는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해결이 된다.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본질이 아닌 비 본질에 힘을 쏟는 경우가 많다.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아이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신약성경에서도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올 때 제자들이 막았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13]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구별하여 실천한다면 성서적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2. 신학적 분석

1) 상황

모든 인간은 문화와 소통을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뛰어난 연구를 하여도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언어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언어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다. 각 나라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적 차이의 중요한 원인이다.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기 언어 안에서 문화가 형성된다. 지형에 의한 단절도 소통에 큰 벽이 된다. 그래서 언어나 지역적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각 나라와 민족의 신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농경문화에서는 풍요의 신에 대한 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에 의해 바다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폭풍과 자연의 신에 대하여 큰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산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산에 나는 불을 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산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불에 두려움이 있고 또한 불이 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신에 대한 이

---

[13] 19: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해는 공통적으로 자연에 앞에서 무능력한 인간의 존재를 발견할 때 그 자연 자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하면 그 자연을 만든 창조자를 섬기게 된다. 이러한 각 지역과 특색에 맞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신에 대한 내용을 논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소통의 문제라 하겠다. 신이 아무리 우리에게 아픔을 이야기 하여도 그것은 신의 영역일 뿐이다. 신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신과 인간의 소통을 위한 희생을 선택하신 방법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며 이것은 소통의 수단으로 인간을 배려한 결과다.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와서 인간과 소통하며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소통은 신학적 중요한 논제이며 소통이 없이는 신학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소통이 바로 문화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문화적 환경에 맞추어 오신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지역의 문화와 필요를 따라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배워 실천하는 길이다.

2) 원인

인간은 신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이 만든 인간이지만, 인간은 신을 보지 못한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는 믿음의 영역이지 지식의 영역이 아니다. 어린 아이에게 아무리 대학교육을 시키려 하여도 불가능하다.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원에 가기 전에는 호랑이에 대하여 아무리 이야기 하여도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 직접 가서 호랑이의 울음소리와 모습을 보아야 한다. 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의 나라에 가야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 소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언어와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 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느끼고 알게 되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계시와 자연의 운행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요소들로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는

오히려 이 땅의 형제와 자매들을 직접 만나시고 함께 먹음으로서 진정한 소통이 되셨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과의 소통은 끊어진다.

3) 대안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신학적 이슈에 의하여 지식적 습득이 필요하나 실천적 신학으로서 사람을 위한 실제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교회론적으로 소통에 대한 해법을 접근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품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너무 내부에만 힘을 쏟고 세상에 대하여선 소홀하였다. 그 중에서도 일부 교회들은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시간, 장소와 장비, 시설 및 재정 등이 미흡하여 단편적인 지식전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문화학교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문화선교 사업이나 신앙지도, 더 나아가 지역사회나 세계 선교지역에 나가 봉사할 수 있는 문화 봉사자로서의 인력양성이나 활용 프로그램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학의 도구로서 문화가 이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한다. 물리적 혜택을 주는 선교보다는 문화 선교를 통하여 삶 속에 들어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과 미디어 역시 문화의 영역이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가 전달된다. 신학에 있어 문화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문화라는 영역에 대한 이해는 때로는 종교 재판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학적 이슈로서 소통의 요소는 삶의 질을 결정하고 또한 삶 자체를 살아가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테러를 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신의 이해가 잘못된 문화적 소통으로 연유된 것이다. 결국 신학은 문화를 통하여 전달이 되고 문화는 신학을 통하여 더 가치 있는 도구가 된다.

3. 사회학적 분석

1) 상황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현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모순된 사회구조임을 증명한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 상황 속에서는 부자는 많아지는데 사회구조적 해결법의 개발 속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은 현실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발달한 사회과학적 기초위에 문화적 해석과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를 매개로 한 헌신적사랑-나눔 실천을 행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가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이를 무매개적으로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객관성과 사회와의 결합성을 부여한 사회적 합법성을 존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눔에 대한 실천이 문화가 된다면 보다 행복한 삶의 실현이 가능해 진다. 문화는 발생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만들어가는 현상이기도 하다. 결국 좋은 문화는 노력으로 생성될 수 있다. 나눔의 문화가 생성된다면 그 사회는 보다 건강하게 성장이 가능해 진다. 나눔의 실천 속에서 가능하다. 문화적 나눔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악기로 연주를 하고 싶어도 레슨비가 없어서 못 배우는 학생이 있다면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구조로 말미암아 절망을 맞보고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부유층이라고 해서 꼭 배운다고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니다. 배우기 싫은데 배워야하는 의무가 부여될 때에는 이는 노동이 된다. 결국 나눔을 통하여 재능과 관심에 따라 그것을 배우고 실천 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야 한다.

2) 원인

사회의 발달로 문화적 요구의 증가와 사회적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택 및 교통, 여가활동, 장기요양 등의 서비스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형태를 바꾸었다. 결국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의 대안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극대화 되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눔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나눔을 실천하는 경우는 지극히 적고 실천한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숨은 나눔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것이 아주 적다보니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이를 부각하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서 다시 의미가 퇴색하기가 일수다. 진실한 나눔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많은 것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다보니 작은 나눔도 돈으로 환산하여 따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 사회는 시간당 주급의 개념으로 월급이 지급되다보니 매주 시간 계산과 월급이 산정되어 쉴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한주만 쉬고 나눔이나 봉사 활동을 하여도 월급자체가 지불이 되지 않는다. 주단위의 체계 안에서 하루가 빠지는 것도 크게 작용된다.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나눔의 실천이 어려워지는 것은 정책적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문화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나눔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새롭게 형성될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더욱 강팍하게 되고 나누기보다는 냉정해야 똑똑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눔의 실천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3) 대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연약한 이웃을 교회에서 사랑해야한다.[14] 사역도 이러한 원칙과 목표를 참고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되고 실천 되어야 한다.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이 없고 오직 신앙적인 책임만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15] 나눔에 대한 해답은 결국 교회가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 교회는 지역에서 중요한

[14] ,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5]마태복음, 5:13-16.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5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community의 역할을 한다. 교회 건물은 주일과 주중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많다. 교회의 건물을 지역 사회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헌을 한다면 나눔의 실천은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일부 교회들은 나눔의 실천을 위하여 노숙자들을 방문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해주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일이며 정부기관에서 사람을 써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 이유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사회에서 이러한 나눔의 실천을 감당한다면 이는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를 통하여 큰 전도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부 회원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나눔의 실천이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한다면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실천될 것이다. 직접적인 전도는 종교적인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문화적 방법으로서 스며들듯이 영향력을 나타낸다면 훨씬 효과적이다. 나눔이라는 동기 자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기에 기독교적 정신의 실천과 사회봉사의 증거로서 역할을 한다.

4. 상담학적 분석

1) 상황

문화적 갈등은 나라와 나라간의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 간의 문화적인 문제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같은 나라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젊은 세대와 노년층의 문화적 갈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인사를 해도 노인들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고, 거꾸로 어른들이 참여 하려고 해도 젊은이들이 선뜻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가 보고 듣고 즐거운 것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류열풍이 불면서 뉴욕 거리 중간 중간에서 한국 가요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때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름다운 노래 하나로 인종과 세대를 뛰어 넘는 모습을 발견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영향력이다. 그러나 요즘은 또 다른 문화적인 양상을 보인다. 개인 미디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핸드폰에서도 동영상이 나온다. 그래서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 각자 자신의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오히려 서로가 간섭을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다보니 오히려 소외의 문제 무관심의 문제가 갈등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간의 문화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원만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단절되고 스스로 고립의 상황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문화의 이해와 공유가 아닌 갈등은 결국 심리적 불안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그로 인하여 개인의 삶이 흔들리게 된다.

2) 원인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부족하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문화관계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는 그것이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가진다.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 지금의 문화는 과거의 문화에 뿌리를 둔다. 그것은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이전과 다른 문화라 할지라도 이전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나오고 평가된다. 비슷한 문화가 더 발전하여 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음 세대의 문화는 이전 세대에서 근거하여 나왔다 하더라도 전혀 다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같음을 찾기보다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문화 자체의 방법이 아닌 이해와 사랑이 오히려 문화적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문화가 형성되는 것 역시 그 지역과 세대와 성별과 언어 등 수많은 변수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단순한 원리를 찾아내기란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리가 공유하게된 것 자체가 문화로서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과 전통이라는 잣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여됨으로서 연류 되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3) 대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 즉 문화와 시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학적 접촉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 문화와 문화의 소통이 시작되고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기 위한 길이 모색된다. 이해와 사랑의 부족이 갈등의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대안이 해답이 된다. 문화적인 이해가 없이 대화를 하는 것은 더 큰 갈등의 문제가 되기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거나 최소한 인정을 해 줄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은 그 살아온 시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도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도 노인들은 젊은 세대의 예술인을 알기 힘들다. 문화라는 영역에도 이해와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젊은이가 노년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한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시대를 넘어서 젊게 사신다고 존경을 받는다. 물론 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넘어서는 위선적인 태도가 아닌 이해와 사랑의 모습을 뿌리에 둘 때에 의미가 있다. 모두가 하나로 기쁨을 함께 누릴 때 갈등은 해소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인 분석과 이해를 통하여 각 영역별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을 보았다. 문화센터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많은 문제 중에서 교회가 세상과 접촉점을 형성하고 문화적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다. 이를 위한 이론적 성찰과 더불어 실제 운영을 통한 효과를 계속해서 살펴보겠다.

III.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이론적 고찰과 분석

1.지역사회를 위한 토착화로서 문화센터

1) 토착화의 정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를 듣는 자들의 문화 안에서 표현되고 전달되었다. 신약성경은 유대와 헬라문화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바울서신에 기록된 언어와 어휘들은 헬라철학과 문화를 바탕에 두고 있다.[16] 성경은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어를 찾아 대처하는 일이기에 번역되는 나라의 문화에 대한 토착화가 전제된다고 본다.[17] 성육신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에 들어오셨고 인간의 삶 속에서 자기계시를 하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문화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을 명령하셨다.[18]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삶과 문화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문화의 변화는 문화 속에 들어가 문화를 통해 이뤄진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를 듣는 자나 모두에게 문화적 이해의 과정이 적용된다. 서로에게 각자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고 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토착화(indigenization)는 라틴어 indigenus에서 유래했다. indigene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토착민이며, 그 형용사형인 indigenous의 의미는 토착적인, 자연적으로 흙에 속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indigenization(토착화)는 그렇지 않은 것을 토착적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19]

---

16 편역, *문화 : 윌로우 뱅크 리포트* (서울: IVP,1992), 17.

17박정세, *기독교 미술의 원형과 토착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11.

18사도행전 1장 8절.

19기독교 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 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2), 371.

데이비드 보쉬는 이를 상황화(contextualization)와 문화화(Cultualization)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이를 통틀어 토착화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20]

기독교의 전통은 어느 특정한 나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성서적 내용의 이해를 기반으로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해석하고 창조해 간다. 결국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토착화는 사회와 동떨어진 조직체로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부가 되어 역할을 해내는 조직체가 되야한다.[21] 교회가 그 사회에 이질감을 형성해서 거리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교회는 하늘 나라의 조직이 아닌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현실 조직이다. 그럼으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가지기 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봉사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를 강조한다면 사회봉사기관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22] 문화센터는 바로 이러한 창의적인 노력에 해당한다.

토착화는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적당한 혼합을 통한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씨가 비옥한 땅에 심기워져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는 삶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인식기반을 형성한다는 의미이다.[23]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토착화를 그 지역적 상황에 형태정도만 바꾼, 외형적 변화 정도로 이해한다. 토착화는 진리를 변질시키고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24] 그러나 토착화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도 성경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의 토착화를 파악하는 개념이다. 기독교의 전파가 피선교국에 일방적인 영향이 아닌 창조적인 적용의 필요성을 말한다.[25]

---

[20]David J. Bosch, *있는 선교,* &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622.

[21] , 한국교회에 있어서 복음의 토착화 현상과 순전성에 관한 고찰; 성서논단 Vol.3 (서울: 한국성서신학교 선교문제연구소, 1995), 195.

[22] Ibid,.

[23]박정세, *민속의 신학적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181-2.

[24]Ibid,.

[25]박정세, *기독교 미술의 원형과 토착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183.

토착화는 한자 내용 그대로 ‘뿌리내림’ 혹은 ‘root-in'으로 해석한 것이다.[26] 토착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씨앗을 통한 열매 맺음에 주목해야 하며 각각의 환경에 맞게 뿌리 내리되 씨앗, 즉 기독교 자체가 가지는 복음의 열매가 중요하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지역마다 나는 과일이 다른 것처럼 정서와 생활환경은 같을 수가 없다. 토착화는 어느 곳 한 곳의 우월적 개념이 아니라 결국 공존이며 이해이며 도구인 것이다. 특별히 사회를 위한 공헌과 복음전도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적응이 필요하다. 옷을 바꿔 입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본질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은 유지하면서도 그 전하는 형태 혹은 표현 형태의 다양한 구사가 필요하다. 결국 토착화는 타자의 문화에 대한 정복이 아닌 이해이며 전달 방식이며 도구이다. 문화센터의 운영에 있어 토착화의 이해를 통한 지역과 환경과 문화에 대한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

2) 토착화의 실예와 문화센터

문화센터를 연구함에 있어 토착화의 문제는 이론과 실제의 균형이 중요하다. 하나님도 계시만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전하시고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전하여진 복음은 토착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론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토착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곧 성경의 문화, 자신의 문화, 타인의 문화이다.[27] 성서의 내용 역시 기록 당시의 시대적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 자체는 이미 토착화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 문화적인 것을 제외하면 본질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복음은 듣는 사람들의 문화를 고려하여 현장화(contextualiz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음 현장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히브리 문화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28]

---

26 , *해석학*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91), 20.

27박정세, *기독교 미술의 원형과 토착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183.

성경 속에서 현장화의 예를 찾아보면, 요셉은 신앙이 철저한 인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의 이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애굽 문화에 적응하려 하였다. 그는 이방인의 타락한 윤리는 단호하게 배격하였고 이방문화에 적응하려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였다.[29] 신앙인으로서 세상문화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세상문화에 대한 거부와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완전히 따르지 않으셨다.[30] 때로는 이들의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개혁을 감행하기도 하셨다. 장로들의 유전을 비판 하셨으며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토록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적하셨다.

신약 성서의 인물 중 스데반도 전도하려고 할 때 모세의 규례를 어긴다는 오해를 받았다.[31] 바울도 빌립보에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송사를 당했다.[32]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 문화를 역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할례가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하다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다.[33]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34] 불필요한 설명과 힘을 빼지 않기 위하여 현장의 문화에 맞춘 것이다. 바울은 또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안해도 되는 결례와 서원을 하였다.[35] 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문화적 동질성을 취함으로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위한 시도였다.[36] 성서의 이러한 노력은 토착화의 개념에 있어 성서적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37]

---

[28] 이용원 공저, *개론*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1993), 254.

[29] 39:7-10

[30]김영철,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장례문화 연구,* 석사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1999), 10.

[31]사도행전, 6:14.

[32]사도행전, 16장.

[33]사도행전, 15:28.

[34]사도행전, 16:3.

[35]사도행전, 21:17-26.

[36]고린도전서, 9:20-29.

[37]김영철,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장례문화 연구,* 11.

카타콤에 남아있는 개종한 이방인들의 예술품에서 보이는 양식 역시 내면의 신앙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면서도 외부로는 비밀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대로 담겨있다.[38] 결국 토착화란 땅에 심어진 나무의 뿌리와 같이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39] 따라서 기독교의 토착화는 그 신학적 이론과 예배 및 경건의 자세와 제도 등을 각 나라와 민족과 지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나 문화 형태로 표현한다.[40] Lanin Sanneh는 피선교지에 대하여 용어가 번역되는 순간부터 이미 토착화는 이루어진다고 해석하였다.[41] 인식의 근거가 되는 성서 역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리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그 나라만의 방식으로 다시 이해되고 있기에 공통어 혹은 공통 개념과 의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토착화가 되려면 피선교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복음을 자신들의 전통문화 속에 수용해서 접합시켜야 하는 것이다. Theology of Incarnation의 개념에서도 살펴보자면, 복음을 성육 시킨다는 말은 복음을 자신의 자리에서 상대편의 자리에까지 적용한다는 의미다. [42]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육신을 증거하고 있다.[43] 성경이 쓰여 지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특정한 문화적 상황 속에 있었으며 이러한 문화적 상황들의 영향을 받았다. 결국 말씀은 그 시대와 지역의 문화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44] 문화라는 그릇 속에 어떻게 기독교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가는 성경을 통하여 접근해야하는 문제이다.[45]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현지의 문화적 요소를 통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토착화의 목적이며 과제이다. 언어와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토착화라는 과제를

---

[38] , *성화의 토착화와 한국화 예수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공개학술강좌 38회 (서울: 연세대, 2007), 3-22.

[39]전호진, *선교학* (서울:개혁주의 신행협회, 1995), 152.

[40]김세윤, *기독교와 한국 문화*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6), 19.

[41]Lanin Sanneh, *Translation the Ma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전재옥 역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93), 134.

[42]김유순, *한국교회에 있어서 복음의 토착화 현상과 순전성에 관한 고찰* (성서논단 Vol No.3, 1995), 200.

[43]요한복음, 1:14,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44]김광식, *토착화와 해석학*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91), 117.

[45] Lanin Sanneh, *Translation the Ma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전재옥 역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93), 134.

통한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문화적 갈등과 거리감을 줄여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친근해질 수 있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형식을 활용해야 한다.[46] 문화센터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문화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 지역과 사람들의 관습, 감정,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토착화는 성서 안에서도 나타나는 문화적인 옷 속의 핵심 진리가 그 나라의 문화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자유롭게 표현되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너무 성경을 강조하면서 타종교나 이교민화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47] 각 나라의 문화적 요소에는 환경에 따라 종교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너무 배타적으로 보거나 또 거꾸로 무조건적인 수용 역시 피해야한다. 한국에서의 토착화를 예를 들자면 한국 교회는 토착적인 시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의 새벽이나 저녁에 나무나 산에 비는 습성을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등 예배와 기도로 바꾸었다. 산신령이나 신에게 제물을 바치던 문화를 헌금으로 적용했다.[48] 무당이 집집마다 굿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을 빌어주던 관습과 문화를 가정 심방으로 해석한 것은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 연관성을 논할 수 있다. 회갑 잔치를 회갑 기념 예배로 드리는 것은 동양의 육십갑자 문화에 기인하여 토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식에 토착화는 필연적으로 개입이 되었으며 이것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기 보다는 서양의 기독교가 한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교회의 사진 자료를 보아도 한국의 목사들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반드시 성직자는 검은색의 가운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직 자체를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창조적인 예술 형태나 의식을 활용하여 복음을 표현하고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현대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외국의 곡을 그대로 번역하여 부르거나 밴드 등 서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악을 대중적이고 유행하고 있다고 하여 무분별하

[46] George G. Hunter III, *목회전략,* (서울: 도서출판 광림, 1991), 235.

[47] 김중은, *성서신학에서 본 토착화신학,* 기독교사상 편집부, 한국의 문화와 신학, 기독교사상 400호 기념 논문집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3), 152.

[48] 김영철,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장례문화 연구,* 11.

게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토착화가 아닌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에 사용하는 찬양이나 연주 형태가 어떤 신앙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즐겁고 대중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것은 상업적인 논리와 정복자 적인 논리로 기독교 문화를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유는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토착화는 도구이다. 본질을 잃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토착화는 본질을 잃지 않고 표현과 전달 수단으로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센터를 진행하고 정착시킴에 있어 토착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문화의 성서적 고찰 (장례문화를 통한 성서적 고찰)

성서의 내용은 이미 토착화의 과정을 통하여 기술 되었다. 문화적인 요소는 그 지역과 환경과 구성원의 성향에 의하여 결정된다. 성경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도 그 지역에 나는 자원과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하였다.[49] 의복, 거주 형태, 음식 등 여러 문화적인 요소를 통하여 각 시대와 지역의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사람의 문화적 가치관이 가장 깊게 드러나는 부분은 장례문화이다. 장례문화는 종교와 지역을 초월하여 삶과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관을 통하여 종교와 지역과 시대의 문화적 가치관을 대변한다. 성서에 나타난 장례문화의 예를 통하여 지역과 환경이 실제 성서적 예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해보도록 하자.

1) 구약성서의 문화

구약성서에서 장례예식에 대하여 규범을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기술한 곳이 없다. 따라서 구약성서의 구절에 나타난 모습을 토대로 장례 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49 25장.

a. 임종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슬퍼하며 애통하였다.[50] 죽음에 대한 감정은 동일하여도 그 표현은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었다.[51] 그리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베옷을 입었다.[52] 또한 머리에 티끌을 쓰고 땅에 엎드리는 풍습이 있었다.[53]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임종 후의 일에 대하여 부탁을 하였다.[54] 요셉은 두 아들을 모두 데리고 문안을 드렸다.[55] 임종 직전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자신의 매장에 대해 유언을 남겼다.[56] 요셉도 죽음 직전에 유언하였으며[57], 다윗도 죽음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다.[58] 임종 후에는 눈을 감지 않았을 경우, 아들이나 친척들이 그 눈을 감겨주고[59] 눈을 감긴 후에는 임종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60] 죽음에 대한 심정은 같아도 나라와 민족마다 표현하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b. 애곡

장례는 먼저 애곡으로써 그 의식이 시작된다.[61] 애곡은 슬픔의 표현으로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이므로, 애곡은 친족의 의무이며 문상객들도 마음을 다해 애곡한다. 애곡은 초상 때부터 시작해서 묘지에서 그리고 매장이 끝난 뒤에도 보통 7일간 계속한다.[62] 예외로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는 30일간[63], 야곱을 위해서는 70일간 애곡했

---

[50] 23:3.

[51]사무엘 1:11, 3:30-32.

[52]사무엘상 31:13, 사무엘하 1:12.

[53]사무엘상 4:10-13, 사무엘하 13:31

[54]창세기 47:29-31.

[55]창세기 48:13-20.

[56]창세기 49:1-33.

[57]창세기 50:25-26.

[58]열왕기상 2:2-3.

[59]창세기 46:4.

[60]창세기 50:1.

[61]박태균, "장례문화 개선에 대한 연구", 10-11.

[62]창세기 50:10 이하, 사무엘상 31:31.

다.[64] 애곡하며 함께 슬퍼하는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는 기본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성경에서도 특이한 의식이 아닌 있는 기본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c. 애가

고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고인의 선행과 용감성 등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야기하고 노래한다. 이것은 애곡과 다르다. 애곡은 사람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출이라면 애가는 보다 절제된 글과 노래를 통하여 조금 더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피 부른 노래가 애가이다.[65]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슬픔도 애가라 부르기 때문에 애가는 장례 절차에만 구한된 특별한 예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먼 미래에 대한 슬픔은 예언적 성격으로 인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장례에 있어 애가는 위로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이를 통해 함께한 모든 유가족과 동료들이 위로를 얻는다.

d. 시신수습

구약 성경에서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시체에 향을 넣어 수습한 장면을 볼 수 있다.[66]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한 방법은 아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시신수습을 위해 시체를 씻고 정한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발라 시체를 염하였다.[67]

e. 입관

구약성서의 예는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된 사실을 통해 볼 수 있다.[68] 성서의 인물들을 통해 성경이 제시하는 절대적인 문화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 당시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적용했음을 볼 수 있다.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입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죽음의 본질적 의미 외의 문화적인 내용은

---

63 20:9, 신명기 34:8.

64창세기 50:3

65사무엘하 1:19-27.

66 50:2, 26, 역대하 16:14.

67박태균, *개선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대전: 목원대학교 신학과, 2002), 14.

68창세기 50:26.

얼마든지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 운구와 하관

시체는 장례행진을 위해 여러 사람이 메고 운반했는데 우리나라의 옛날 상여와 흡사하다.[69] 그러나 입관된 것이 아니라 들것에 실리어 묘지로 운반되고, 그 뒤에는 애도자의 행렬이 따랐고, 행렬을 통해 죽은 자의 신분과 부를 알 수 있었다.[70] 운구 행렬은 죽은 자에 대한 가족이나 백성들의 뜨거운 애도와 존경을 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무덤은 주로 바위를 판 무덤이나 자연동굴을 이용하여 안치되었다.[71]

g. 장례방법

구약성서의 장례방법은 형태를 중심으로 보면 매장, 화장, 생매장, 절충형, 미이라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72]

첫째로 매장은 구약에서 보면 주로 족장들이나 리더들의 장례의 방식이 매장의 방식이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매장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많은 자손들이 매장의 방법을 취하였다.[73]

둘째로 화장이 있다. 이스라엘 관습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으로는 화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는 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74] 그리고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치욕을 주기 위한 경우다.[75] 이는 불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파멸의 의미가 정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76]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불사르라는 율법 역시 이를 더 강하게 나타낸다.[77] 구약 성경의 인물 중 아간의 경우는 여리고 성 전투에서 성의 모든 물건 중의 어떤 것이라도

69　　　3:31 이하, 역대하 16:14.

70박태균, “장례문화 개선에 대한 연구”, 8-9.

71창세기 25:9.

72박태균, “장례문화 개선에 대한 연구”, 8-9.

73창세기 25:29, 아브라함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매장, 창세기 35:29 이삭의 예, 창세기 49:33 야곱의 예, 창세기 50:26 요셉의 예, 열왕기상 2:10 다윗의 예, 열왕기상 11:43 솔로몬의 예.

74창세기 28: 24.

75아모스 2:1.

76박태균, 　　　*개선에 대한 연구*, 9.

77레위기 21:9.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도 어겼다.[78] 이에 대한 형별로 아간은 가족 및 가축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졌다.[79]

셋째로 생매장은 구약성경에 고라 일족이 생매장을 당하였다.[80] 성경에서는 땅이 고라와 일족은 모두 삼켰다고 표현하고 있다. 살아있는 채로 땅으로 들어간 것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라와 일족은 불순종과 교만과 모세에 대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생매장 되었다.

넷째로 절충형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을 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야베스에서 화장된 후 엘셀나무 밑에서 매장 되었다.[81]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엘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칠일을 금식했다.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화장한 것은 그의 시신이 이미 머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화장을 했지만 뼈는 남겨서 매장하였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거나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화형을 행하였으나, 사울 왕은 전투에서 패했어도 왕이었기 때문에 화장 이후 매장을 했다.[82]

다섯째 장례형태는 미이라장이다. 구약성경에 야곱과 요셉이 죽어 그 시신을 처리할 때 바로 애굽의 장법인 미이라장이 사용되었다.[83]

구약의 장례는 보통 1일장으로 지냈는데, 이는 하루해를 넘기지 않으려 애써 부정(不淨)을 면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보편적인 무덤의 유형은 연한 암석을 뚫어서 만들었거나 자연적인 동굴들을 이용한 묘실이었다. 한편 묘실에는 좁은 입구가 있고 다른 세 면의 벽돌 밑에는 돌로 쌓은 긴 의자가 있어서 그 위에 시체들을 안치하였다. 이상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장례문화는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였고 화장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었다.

---

[78] 6:17-18.

[79] 여호수아 7:15, 21-26.

[80] 민수기 16:31-33.

[81] 사무엘상 31:12-13.

[82] 박태균, *개선에 대한 연구*, 9.

[83] 박윤선, *성경 주석 창세기 출애굽기*, (서울: 영음사, 1970), 406.

h. 묘비

성경을 보면 무덤 앞에 묘비를 세운 기록이 있다. 야곱이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한 후 묘비를 세웠다.[84] 묘비를 통하여 죽은 자에 대한 기억과 아쉬움과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야곱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세운 사실을 보고 알 수 있다. 묘비 어느 문화가 다른 문화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과 언제든지 기억하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 묘비를 세운다.

i. 장례 후 의식

마지막으로 장례 후 의식이 있다.[85] 성경에 기록된 장례 후 의식은 유대인 정결예법에 따라 부정을 제거할 재를 만들어 깨끗한 물에 타서 행해졌다.[86]

2) 신약성서의 문화

신약성경에는 장례문화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 그러나 기록이 적다고 해서 의식이 없었다거나 무시된 것이 아니다. 형식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통일된 양식을 찾아가던 과정이었다.[87] 그 양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임종과 애곡

신약 성경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가족과 문상객들이 애곡하였다.[88] 신약시대에도 초상이 나면 애곡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며 죽은 자에 대한 예의였다. 예수님 역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볼 수 있다.[89] 죽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천국의 소망이 있다해도 당장의 이별

---

[84] 35:19.

[85]예레미아10:4-5, 11:25, 28:40, 13:6, 13:34, 14:8-9, 15:8.

[86]김영철,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장례문화 연구*, 14.

[87]박태균, *장례문화 개선에 대한 연구*, 12-13.

[88]마가복음 6:37-39.

[89]요한복음 11:35.

에 대한 슬픔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똑같다.

b. 시신수습

임종 후 시체를 씻어 안전한 곳에 안치하고 향유를 몸에 바르거나 향 재료를 몸에 넣었다.[90] 향 재료를 몸에 넣은 후에 염습 즉, 시신을 천으로 싸는 염을 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머리는 수건으로 싸서 장사했다.[91] 또한 나사로도 수족을 베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서 장사되었다.[92] 이러한 절차를 마치고 관에 넣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 관에 손을 댄 것으로 보아 성경에서도 염 이후에 시체를 관에 넣어서 장사한 것을 알 수 있다.[93] 죽은 나사로의 경우 무덤이 돌로 막혀있는 동굴이었다.[94] 나사로의 시체는 손발이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95] 이스라엘의 시신수습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몸을 씻긴 후에 옷을 입히고 이불을 싸는 염과 같은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c. 운구와 하관

가족과 주위의 인사들에 의해서 장례가 진행되었고 시체는 상여로 운반되었으며 이웃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동네 사람들이 큰 떼를 지어 상여를 따라 왔고, 매장하기 위한 행렬 때문에 장례 행렬이 따르게 되었다.[96]

d. 장례예식

신약성경에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했다.[97]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었다.[98] 세례 요한과 매장되었고, 나사로도 매장되었다.[99] 아나니아와 삽비

---

90 14:8, 요한복음 19:39-40.

91 마태복음 27:59, 요한복음 20:6.

92 요한복음 11:44.

93 누가복음 7:14.

94 요한복음 11:38.

95 요한복음 11:44.

96 마태복음 14:23.

97 박태균, 장례문화 개선에 대한 연구, 12.

98 마태복음 27:60.

라도 비록 징계 받아 죽었으나 매장되었다.[100] 예수님의 시체는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았다. 그리고 아직 장사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시신을 모셨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다.[101]
화장을 하게 되면 잔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다는 표현[102]과 바울의 죽음 자들에 대한 주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표현은 매장을 염두에 두고 전한 말이다.[103] 신약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보는 전인 개념을 전하고 있다.[104] 이와 더불어 인간이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 및 전인의 부활 개념 때문에 매장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105] 아나니아는 거짓을 말하고 죽어 밖에 운반하여 매장되었다. 그 후 삽비라도 같은 이유로 죽어 남편 곁에 부부를 합장하였다.[106]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이층 방에 눕혀 놓았으며, 친구들이 몰려와서 그녀가 살았을 때에 만들어 두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 주면서 애도했다.[107]

3) 성서의 시대별 문화의 특징과 문화센터

성서의 시대적 문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장례문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장례문화는 시대적 문화와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 된 것을 볼 수 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매장 문화를 선호하였다. 이것은 심판과 천국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강한 의식이 담겨있으며 죄인에게 처벌하던 화형은 결국 정서적으로 부정

---

99 6:29, 요한복음 11:17.

100 사도행전 5:6, 5:11.

101 27:60, 요한복음 19:38-42.

102 요한복음11:11

103 데살로니가전서 4:14, 사도행전 13:36, 고린도전서 11:30, 고린도전서 15:51.

104 고린도전서 3:16-17, 6:19.

105 누가복음 7: 11-17.

106 사도행전 5:5.

107 사도행전 9:36-39.

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화장 보다는 매장을 고수하는 것을 본다면 성서의 내용을 토대로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장례문화 역시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성서의 내용 중 매장 방식의 선호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역과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 문화의 토착화된 양식이지 정답은 아니다. 장례문화를 예로 살펴보면서 문화센타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토착화 이론을 통하여 현 시대에 교회가 문화센타를 운영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에 있다. 또한 삶을 잘 살아야하는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과 같다. 문화센타는 삶을 잘 살게 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고 운영된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통해 삶의 행복을 기대하려면 더욱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필요하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다.[108] 인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장례예식은 죽음을 이별로 보는 것과 영원한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두 가지 관점에 의해 형식이 결정된다. 성경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장례문화는 천국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돌무덤을 예로 들자면 이것은 지리학적 특성에 맞는 옷을 입고 있을 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한 자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서적인 내용의 고찰과 이해를 토대로 문화센타 역시 교회의 사랑의 표현의 통로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성서적 이해의 연장선에서 장례문화를 통한 기독교 문화와 역사에 관한 분석은 문화센타의 설립 명분과 필요성에 대하여 더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3. 문화의 기독교 역사적 고찰 (장례문화를 통한 시대적 고찰)

앞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장례문화 비교연구를 통하여 문화의 변화를 분석하고 더불어 문화센타의 설립 필요성과 의미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기독교 문화의 변화를 장례문화의 관점에서 살피면서, 시대 상황과 문화적 변화 속에서 기독교가 당시의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본다. 그리

[108] 12:27.

고 이를 통해 문화센타의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을 가늠해 본다.
문화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교회의 역사를 고대, 중세, 종교개혁 이후, 근대로 나누어 구분하였다.[109] 특히 중세의 경우 그 안에서 동방과 서방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동방의 예전과 로마 예식의 영향을 받은 서방의 예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110] 같은 시기지만 언어와 문화적 배경과 사고방식 의 차이가 예전의 모습에도 차이가 있었다.[111]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대 기독교의 문화

고대교회의 시간적 배경은 A.D. 1세기부터, 590년까지이다. 이 시대는 그리스-라틴교회, 교부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112] 교회사적으로 보자면, 교리, 교회정치, 예배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이다.[113] 기독교는 모진 핍박 속에서 4세기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등극까지 존속의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작은 종교적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114] 이 시기는 기독교의 세계 종교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시기라 할 수 있다.
고대 풍습은 죽은 자와 연관하여 두 가지 기본개념이 있었는데, 죽음은 오염을 가져온다는 것과 시신을 방치하면 죽은 영혼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다.[115] 초대 기독교인의 장례 모습은 로마 관습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많은 것을 거부하고, 차별을 두었던 모습이 나타난다. 화장풍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두지 않았다.[116] 고대 교회의 장례 예식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온몸을 닦고 기름을 바르고 몸을 천으로 감았다. 로마의 문화는 죽음을 악한 징조로 보았기

---

[109]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1,* 역 (서울: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27-28.

[110]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 정장복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76-81.

[111]김영재,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0), 274.

[112]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1,* 29.

[113]*Ibid*, 28.

[114]*Ibid.*

[115]Furguson, Everett., *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3rd. edition,* 엄성옥,박경범 공역,(서울:은성출판사), 290.

[116]김외식, *교회사에 나타난 장례예식의 변천* (새가정, 1998년 10월호), 39.

때문에 장례식을 밤에 하였지만 신앙을 지켜낸 기독교인들을 승리자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장례예식은 슬픔이 아닌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묘지를 가는 길은 대낮에 이루어졌다. 특히 하얀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할렐루야를 부르며 장례행진을 하였다. 죽음을 새로운 생일로 받아들이고 기념하였다.[117] 신앙의 표현으로서 또한 예수의 부활과 승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얀 옷이라든지 애곡이 아닌 할렐루야를 부르며 장례행진을 했다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시신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찬송과 감사기도 그리고 시편을 읽는 의식을 행하였다. 성찬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존재하는 성도의 교제로 생각하며 진행하고 시신에게 평화의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시신의 발이 동쪽으로 향하게 하여 태양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상징하였다.[118]
결과적으로 고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가 장례식에 미친 영향은, 고대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의식 곳곳에 나타냈고, 당시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장례의식의 형태와 의미를 새롭게 둔 것인데, 애곡하며 시신의 뒤를 따르던 관습을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의식으로, 또한 죽음의 의미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일을 맞는 또 하나의 기념일로 바꾸었다.[119] 그러나 토착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때의 예식은 기독교적인 믿음과 소망의 표현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성서적으로 볼 때 애곡 역시도 성서에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대적 특징으로서 죽음에 대한 승리의 소망과 선포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장례식을 기독교적인 상징물이 아닌 떠나보낸 유족의 심정에서 이해한다면 한쪽에 편중되게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시신에 대하여 평화의 키스를 한다든지 시신의 발을 동쪽을 향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다. 결국 선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진행되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며 남겨진 자들의 마음에 아쉬움이 없도록 배려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도 하였으리라고

---

[117]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347-348.

[118]최유환, *가정의례* (서울: 소망사, 1999), 143.

[119]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348.

본다.

2) 중세기독교의 문화

고대 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일어난 가장 큰 외적인 변화가 있다. 교회와 묘지의 구분이 없어진 것이다.[120] 5세기 야만족의 침입과 도시 밖 무덤 훼손 위험으로 성자나 순교자의 유해가 이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신자들도 교회 부지 안에 있는 묘지에 매장을 원한 것이다. 장례예식에 대한 표면적인 태도는 성서적인 내용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매장에 더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고대교회의 장례의 특징이 승리와 부활의 소망이었다면, 중세교회의 특징은 두려움과 공포라고 할 수 있다. 땅에 매장된다는 것은 지옥과 연옥에서의 형벌과 나중 심판으로까지 연결되며,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121] 중세교회는 역사적 상황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졌고, 이 결과로 인해, 서로 다른 예전의 형태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1) 동방교회

동방교회의 경우, 부활신앙이 교회를 형성하는 모든 예배, 예전, 예식의 근간을 이루었다.[122] 동방교회의 선교는 철저히 교회 중심적이었으며 예전을 특별히 중요시 하였다.[123] 그리고 그 대상에 있어 구원 또는 생명은 사람들에게만 제한하지 않았다.[124] 우주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였으며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와 달리 이단시 되면서까지 그 지역 정서에 적응하고 함께 하였던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예식을 중시하였던 동방교회에 있어 장례예식의 특징은 고대교회가 가졌던 죽음의 의미를 그대로 지

[120] James F. White, *예배학 입문*, 39.

[121] 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131.

[122] 15:54.

[123]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0), 324-5.

[124] Ibid, 328.

켜온 것이다. 관 뚜껑을 덮지 않고 죽은 자의 전신이 다 보이도록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러한 행위는 죽음의 궁극적인 비극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복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125] 동방교회의 의식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였다. 죽은 자의 구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향을 계속해서 뿌렸다. 오늘날 평소 주일 예배에서도, 촛불과 향을 볼 수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때 켜는 촛불이나 부활절에 제단을 꽃으로 장식하여 향기를 내는 것도 죽은 자를 기억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126]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죽은 자의 시신이 매장될 때까지 계속 향을 뿌려지는데 이는 죽은 자의 시신이 그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의 시신이 그 안에서 이미 몸의 구속이 시작되었다는 징조를 드러내는 것이다.[127]
이런 부활 신앙이 동방교회 매장 의식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 부활의 축제 비슷한 것이 장례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예식을 중요시 했던 동방교회는 고대의 전통을 지켜 부활을 드러낼 수 있는 예식을 갖추려고 노력하였으며 장례예식 자체가 마치 부활의 기념처럼 그 의미가 극대화 된 특징이 있다. 예식과 승리의 선포로 축제와 같은 극적인 요소가 강조되다보니 오히려 죽음에 대한 의미는 희석되는 것같이 보인다. 남겨진 자들에 대한 배려로서의 예식이라기 보다 전통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이 된다. 이후에 계속 현대적인 양상에 대하여서도 조사를 하겠으나 이러한 형식에 치우친 장례예식은 사실상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찾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의 장례 예식에 중세기 초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128] 동방교회와 차이 나는 서방교회의 장례 예식의 특성은 공포와 두려움이다.[129] York지방에

---

125 . *매장 의식과 추도예식*, 101-2.

126박근원. *기독교와 관혼상제*, 101-102.

127박근원. *기독교 매장 의식과 추도예식*, 101-2.

128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 349.

서 사용된 기도문인 “끓는 가마솥의 잔혹한 화염에서 그들을 건져주소서”[130]라는 내용만 보아도, 할렐루야를 부르며, 묘지로 향하던 고대교회 모습과 비교할 때의 죽음의 의미가 너무도 다름을 알 수 있다. 당시 장례식을 대표하는 것은 검은 의복, 밀랍양초, 근엄한 종소리이다.[131]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겁고 진중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다. 그러나 경건함과 무거움은 분명 다르다. 중세의 분위기는 경건을 위한 형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엄격함 그리고 무거움이 특징으로 보인다.
서방교회의 장례예식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a. 임종

사제와 신자들은 죽은 사람의 집에서 모여 죄의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의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편과 기도문을 교송했다. 이는 악령들이 임종의 자리에 숨어서 마지막 숨 쉴 때에 나타나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붙잡아 가려하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중세의 기도록 신앙이 반영되었다. 장례식 속에 영혼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스며들게 된 것이다.[132]

b. 매장의식

중세의 매장의식은 보통 교회 뜰에서 행하였다. 교회 뜰의 시신을 보인 후 시편과 함께 교회 안으로 운반되었다. 관은 교회 안에 안치되며, 이때 성체성사가 거행된다. 죽은 자에게 사면이 선언되고 향이 피워지며 성수가 뿌려졌다.[133]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성찬이 베풀어 졌고, 진혼미사곡이 불리워지며, 이와 함께 죽은 자의 영면을 위한 특별한 미사가 드려졌다. 교회에서의 장례예식은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서 전 교회의 종말론적 의식이 되고 지상의 교회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을

---

[129]Ibid.

[130]Ibid.

[131] , *그리고 장례의식과 관습들,*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3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4), 530.

[132]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349.

[133]Ibid.

천국으로 보내는 의미로 의식이 진행되어졌다.[134]

c. 운구

시신을 교회에서 장지로의 옮길 때 교송과 함께 진행되었다. 교성곡의 내용은 천사들이 낙원으로 인도하고 한 때 거지였던 나사로와 함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부활의 승리보다는 죽은 영혼의 안식과 떠나보내는 환송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울 수 밖에 없다.

d. 장례예식 및 매장

중세기 장례의식은 고대 장례의식에서 나타난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없고, 죽은 자의 죄 용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135] 죽음과 심판 그리고 연옥을 생각하게 하고 영혼의 운명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였다.[136] 관이 무덤 곁에 놓이면 사제가 관에 성수를 뿌리고 성유를 도유한다. 그런 다음 집례 하는 사제는 기도문 성가를 교송으로 노래한다.[137] 이렇게 교송이 반복되는 동안 무덤은 흙으로 덮이게 된다.[138] 중세 이후, 조금의 변화를 모색한다. 즉 개인의 집에서 예식 없이 진행되기도 하고 성찬식은 고정 순서로 행하여졌다. 또한 죽은 자에 대한 용서와 심판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순서로 융창성가, 사제의 용서의 선언 등이 추가되고, 시신에 행하는 분향과 관수도 강조되었다.[139] 제 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부활의 특성이 좀 더 강조될 것과 나라나 지역적인 관습에 대한 긍적적인 수용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결정적인 정서는 Dies Irae라는 13세기의 장례식에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다.[140] 기본적인 정서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이

---

134 , 한국의 전통상제와 성경적 장례의식, 233-34.

135 James F. White, , 197.

136 박근원, *기독교의 매장 의식과 추도 예식,* 103.

137 요한복음 11:25-26, "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138 장례식, 기독교 대백과사전 13권 (1980).

139 박근원, *기독교의 매장의식과 추도예식,* 102-3.

140 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132.
"내용: 나를 꺼지지 않는 불길에서 구원 하소서, 당신의 은혜를 입은 양떼와 더불어. 오! 나를, 거하게 하소서. 염소들 가운데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나 당신의 의로운 손에 나를 들어 올리소서. 사악한 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억제할 수 없는 진노의 화명 속에 처하게 되나이다. 나를 불러 당신의 성도와 함께 나를 에우소서."

가사를 통하여 확연히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세교회의 특징은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식을 강조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과 서방교회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강조된 무거운 장례예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동방교회의 경우 희망적이고 예식적인 모습을 보여 준 반면 서방교회는 종교의 권위에 대하여 지나친 강조였다고 분석이 가능하다. 장례예식은 남겨진 잘들을 위한 위로 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 이지만 바티칸 회의를 통해 개선을 시도하였던 서방교회의 노력은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으나 별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종교개혁의 필연적인 등장을 장례예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3) 종교개혁 이후의 문화

종교개혁은 중세시대 이후 나타난 장례 예식의 형식과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141] 종교개혁 이후는 형식에 있어서, 루터교회(루터교)와 개혁교회, 그 중간 입장을 취했던 영국교회(성공회)로 나눌 수 있다.[142]

(1) 루터교회

루터교회는 장례예식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다. 예전화된 매장 의식을 부인하였고 예식서를 남겨놓지 않았다.[143] 단지 장례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교와 찬송 등이 있을 뿐이다. 루터교에서 강조하는 장례의 세 가지 초점있다.

첫째로 죽은 사람의 육체가 아닌, 부활을 믿는 신앙에 있다. 찬송이나 기도 그리고 설교에서 부활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장례는 죽은 자와 남겨진 가족을 향한 교회 공

[141] James F. White, *예배학 입문*, 350.

[142] , *목회와 가정의례*, 144.

[143]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350.

동체의 사랑의 표현으로 보았다. 마지막 셋째로 장례예식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장례예식의 본 의미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다.[144] 의미를 강조하다보니 예전이 약해지고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혼란이 야기 되었다. 어떤 곳에서는 목회자 없이 가족끼리 의미만 찾고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장례예식의 설교대신 추모사나 약력이 대신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19세기 중반부터 다시 장례예식에 대한 예전화 운동이 일어났다.[145] 다시 정리된 예식은 첫째로 죽은자의 집이나 장의사에서 인사와 기도와 찬송 그리고 장지로 초대하는 간단한 예식을 행하였다. 둘째로 공동묘지나 채플이나 교회에서 본 장례예식을 거행하였다. 개회찬송과 성서봉독과 설교와 약력 그리고 무덤에의 행진 등 의식화된 예식을 거행하였다. 셋째로 무덤에서 찬송과 성서봉독과 위탁의 말씀 등으로 기본적인 구성을 하고 주의기도와 사도신경 그리고 축도 등 집례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되었다.[146]

루터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죽음이라는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예전에 소홀 하였다는 것은 결국 다른 예식에 비하여 죽음에 대하여 중요성과 비중을 축소하고 싶은 의도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암울한 분위기를 종교적 의식 속에서 제하여 버리고 승리와 소망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성서적인 내용을 살펴서도 알 수 있듯이 삶은 곳 죽음과 함께 논의될 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처음에는 예전을 소홀히 하였으나, 19세기 다시 예전을 회복하려는 모습은 루터교 저변에 깔린 죽음을 대하는 정신의 회복과 더불어 당시 상황적 필요에 의한 예전을 회복운동이라고 여겨지며, 적절한 대안이 없어, 죽음에 대한 정신마저 잃어 가던 상황에서 나타난 적절한 대처였다고 볼 수 있다.

(2) 영국 성공회

---

144 , *매장 의식과 추도예식*, 105.

145 Ibid.

146 Ibid.

영국 성공회는 예전에 있어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입장을 취했다.[147] 중간 입장을 취하다 보니 카톨릭의 연옥을 정당화 하는 모습과 복잡한 예전이 보인다.[148] 1549년 Thomas Cranmer 주교가 예식을 간소화 하였다. 모든 의식을 간결하게 하였다. 내용을 보면, 교회에서 묘지까지 장례 행렬과 매장, 성찬 예식이 있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인정했지만, 카톨릭에서 하는 죽은 자를 위한 미사는 없어졌다.[149] 1552년 채택된 의식이 1870년에 수정을 거쳐, 1971년에 현대화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누구의 장례식이나 다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교회에서 공동묘지가 멀 때에는 묘지에 있는 채플에서 의식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셋째로 상황에 따른 예식문의 수정을 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죽은자를 위한 기도는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닌 추모를 위한 기도로 수용되었다.[150] 중간적인 태도는 수용도 거부도 아닌 본질을 흐리게 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 상황 대처는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식을 만드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파악이 된다. 통일성 없는 예식의 집행은 남겨진 유족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격이며 토착화의 관점에서 적응이 아닌 전혀 무지의 산물로 기독교적인 본질을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현대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 정리된 예식서를 가지고 있다. 내용상 루터교 보다는 좀 더 교회와 사회의 관계, 교회 성도와 가족과의 관계를 염두 해 두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 좀 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 직후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없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3) 개혁교회와 청교도

개혁교회와 청교도는 의식 보다는 신앙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오직 교회와 집,

---

147 , *가정의례*, 144.

148 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187.

149 박근원, *기독교의 매장 의식과 추도 예식*, 104.

150 Ibid.

두 군데에서만 할 수 있는 규례를 정했다. 죽은 자를 무덤으로 옮긴 후에는 아무런 예식도 하지 않고, 매장했다. 목사와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목사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한 후 장례식을 마쳤다.[151] 전통적인 개혁교회는 매장을 철저히 세속적으로 보았다. 이를 강조하다보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매장에 관한 예식서도 만들지 않았다.[152]

매장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장례예식의 절차에 있어 매장은 유족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실상 교회 안에서의 예식과 신앙을 강조하다보니 이러한 장례예식과 문화를 만들게 된 것이다. 1541년 마련된, Geneva의 교회 장정에는 죽은 자가 매장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미신적인 행동을 경고하고 있다.[153] 이것은 다시 1564년 스코틀랜드 교회 헌장에 기록되고, 1643년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의 예배의 모범 부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154] 웨스트민스터의 예배 모범은 한국 개신교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그 내용에도 장례식날 시신을 공동묘지로 정중하게 운구한 뒤 어떤 의식도 갖지 말고 즉시 매장하라고 말한다. 즉 시신을 향해 무릎을 꿇는다든지 관습적인 어떠한 행동도 미신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죽은 자에게도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지해야한다.[155]

개혁교회의 장례는 다른 곳보다 더 예전을 멀리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청교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모든 예식에 절제라고 보기는 힘든 가지치기를 하였다. 중세의 예식에 치우치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정리되었다고 보겠다. 장례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편파적이고 극단적인 처사는 효율이 아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우상 숭배를 금한다는 의미를 상기하고 장례예식의

[151]James F. White, *역사*,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00), 131-132.

[152]김외식, *교회사에 나타난 장례예식의 변천* (새가정 11월호, 1998), 41.

[153]박근원, *기독교의 매장 의식과 추도 예식*, 106.

[154] Ibid.

[155] Thomas Leishman, *The Westminster Directory*, 정작복 옮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2), 75.

본질을 살펴보아야하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또한 동시대의 정서와 남은 유가족을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교단이나 단체의 규율과 철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성경적이면서도 동시대적인 포용력이 있는 예식이 필요하다.

4) 근대 기독교의 문화

근대 기독교의 장례예식은 산업화와 더불어 지나치게 상업화되었다. 고대 교회와 같이 천국의 소망이나 희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중세교회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도 아닌 아예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형식화 되었다. 교회의 장례예식은 상업화되었다. 교회가 가져야할 죽음에 대한 경건한 메시지가 다루어지지 않고 형식에 급급하게 된 것이다.[156] 장례예식이 남겨진 자들을 위한 위로와 죽음에 대한 다시 한 번 삶의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닌 희망적인 내용만을 담아내려는 것은 극단적인 오류라 볼 수 있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는 동안 마치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것처럼 점점 상업화 사회 속에서 실용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카톨릭은 의식을 중요시하는데 부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의식 자체의 분위기나 무게감을 승리와 희망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를 볼 수가 있다.[157] 카톨릭이 의식을 강조하다보니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중요시 한다. 교회들도, 크리스천의 죽음에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장로교회의 경우 예식서 제목을 부활에의 증언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연합감리교회의 경우 사망과 부활의 예배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158] 근대에 와서 장례예식에 관한 거의 모든 교회의 움직임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강조한다. 이것은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강조점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형식은 달라져도 결국 내용은 슬픔과 애도의 위로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부활과 승리를 강조하는가의 반복이다. 그 사이 형식이 바뀌고 표현 방식에 있어서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

[156] , *나타난 장례예식의 변천*, 42.

[157]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352.

[158] Ibid.

5) 장례문화를 통한 근대 문화와 문화센터

기독교 문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형식을 바꾸어 나타나고 있음을 장례문화를 통하여 알았다. 앞서 살펴본 성경의 문화와 기독교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문화센터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진행이 된다면 역사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장례예식을 통하여 죽음의 본질적 의미를 다루는 문화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성경의 내용을 시대마다 어떻게 수용하고 형식에 반영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에 현대 문화 형식에 대한 이해를 더하여 현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Ⅳ.교회 문화센터의 지역사회 적용을 위한 연구

1. 교회 문화센터의 개념

1) 교회 문화센터의 의미

사람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먼저 경험한 사람 혹은 재능을 개발한 사람이 새롭게 경험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기술과 재미를 나누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충족이다. 이는 세상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누구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원한다. 교회문화센터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공간을 문화소통의 창구로 제공하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 문화센터와의 차이점은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와 소통의 도구로 헌신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강사의 구성부터 학생들의 모집에 이르기까지 Non-profit Organization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구상하고 진행한다. 다른 종교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독교적인 특징을 살려서 더 객관적인 효과들을 찾아내어 교회와 지역사회가 모두다 만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담기는 곳이 문화센터의 중요한 의미이다.

2) 교회 문화센터의 역할

재능을 가진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소통의 창구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본을 들여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교회는 문화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교회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요구 받기 때문에 이미지를 실추하기가 쉽다. 세상에서는 이해될 일이 교회에서는 높은 윤리적 잣대로 평가된다. 그러한 실정에서 문화센터를 통한 지역사회에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또한 성도 중에서 혹은 봉사를 원하는 봉사자 중에서 실제 전공을 하였지만 활

용하지 못하던 사람도 자신의 시간을 내서 전문적인 강사로 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자신의 숨은 재능을 다시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취미로 배우거나 혹은 전공을 하기 전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한 즐겁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2.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문화센터

1) 교회문화센터의 필요성

사람은 문화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센터는 필요하다. 문화 활동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공간을 만들고 사람을 모집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본과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새롭게 부지를 마련하여 건물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확실한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중간에 멈추지 않아야 의미가 있다. 무조건적인 투자와 지원은 국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교회문화센터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다. 주중에 거의 교회 공간의 활용도가 낮다. 대부분 비워져 있고 잠겨져 있는 공간들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용하지 않는 교회의 공간과 시간을 활용하여 문화센터를 만든다면 따로 땅과 건물을 지어야하는 막대한 자본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인력 역시 이미 공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다수의 신도들 중에 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고 강사 역시 교회 안에서 혹은 지인을 통하여 확보가 가능하다. 결국 문화센터의 필요성은 교회 문화센터를 통해 가장 생산적으로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교회문화센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택이다.

2) 지역문화센터와의 차이점

앞서 이야기 했듯이 지역문화센터는 새롭게 땅과 건물과 사람과 자본이 투입되야 만들 수가 있다. 이미 만들어진 문화센터 건물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교회의 문화센터는 그러한 면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교회가 문을 열기만하면 바로 오픈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의 교회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나 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을 위해 지역 선정의 고민 없이 시작 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시설과 설비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효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는 문화센터의 대상자 역시 폭이 넓어진다. 즉 교회 내 성도들 역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결속력과 지속력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새롭게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행착오를 거쳐야 가능하지만 교회는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사무 인력 및 강사 인력가지도 자급이 가능하다. 물론 외부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거나 요구에 대한 사람이 없을 때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개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구별이 되지 않고 섞여 있다가 모집을 공고하는 순간 나뉘어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시작한 교회와 시작하지 않은 교회의 차이이다. 가능성을 가지고도 시도하지 않음녀 보이지 않지만 일단 시도하면 속에 들어있던 모든 기능들이 발견되고 활용될 수 있다. 내부에서 모집하여 외부에까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큰 구별점이다.

지역 관공서에서 주관 할 경우 예산과 인력 편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많지만 교회는 필요가 확실하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실행이 가능하다. 뜨개질 교실의 경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의사를 표현하자마자 4명 정도의 인원이 시작하여 굉장히 즐겁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성에 있어서도 급하게 결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자발적인 참여의 힘이 빠르고 강하다. 비용과 속도 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보다도 가장 효율성이 높다. 문화센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차이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이다.

3) 교회문화센터의 문제점

종교적인 건물에서의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경우 프로그램의 선정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주요한 시간에 문화센터 단독의 행사와 교회의 행사가 겹치게 되면 마찰이 불가피하다. 독립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 문화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한계점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문화센터 운영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여되다 보면 오히려 교회의 집중력이 분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전도의 기회를 높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존 신자들의 신앙을 방해 할 수도 있다. 한정된 여가 시간에 신앙에 대한 점검보다 자기 계발에 힘을 쓰다보면 교회의 본질인 신앙심이 약해질 위험도 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보편적인 주제로 접근하지만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을 적용해보면 해결점이 크다. 예를 들어 긍휼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다. 이것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타자에 대한 이해 혹은 양육강식의 동물적 본능이 만연한 사회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인간성으로서 문화센터에 적용하면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회와 기독교가 모두 공감하는 단어이고 문화센터의 설립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의미를 찾고 프로그램을 선정해 나간다면 사회와 종교기관 간에 마찰 없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회비나 강사비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에 우선순위의 선정에 있어 문화센터의 유지를 위해 교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경우 등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에 외부 학원이나 강사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즉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영향을 미쳐 수입에 지장이 생기면 교회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반대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지역조사가 필요하다.

4) 교회문화센터의 효과

지역 사회에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 할 수 있다. 평소에 교회의 문턱이 높고 선입견으로 인하여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교회의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과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사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며 사회 공헌의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수 민족의 자녀들 혹은 당사자에게 정부가 지원해주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담당해 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람은 먹어서 생존하는 것만으로 만족 할 수 없다. 듣고 보고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도 이것을 알기에 기관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진 곳의 나라를 위하여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통하여 더욱 확연하게 증명되게 된다.

3. 뉴욕지역 교회의 문화센터 운영의 예

1) 효신장로교회 효신아카데미

(1) 설립취지

효신교회는 뉴욕 퀸즈지역 (42-15 166ST FLUSHING NY 11358)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이다. 특히 대형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2012년에 교육관을 별도로 준공하여 모범적인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다.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교회이다.

(2) 운영프로그램

a) 방과 후 학교

학교 시간에 미쳐 일을 마치지 못하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의 위하여 아이들을 방과 후에 픽업하여 학교 숙제와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1- 접수방법: 방문 접수

2- 12주 단위 수업

3- 과목: 영어, 수학, 음악, 주산, 미술, 발레, 방송댄스, 탁구교실, 3세반

b) 수업료

1- 방과후 수업료는 한 달에 $ 300, 둘째 $280, 셋째 $250 (점심, 픽업비용 포함), 수업은 학교 숙제, 개별 Worksheet(Math and English), and Project입니다.

2- 방과후 학생에 한해서 음악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할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영어, 수학 수업은 3명 이상, 주산, 미술수업은 5명 이상 등록 시 과목이 개설됩니다.

3- 3세 반은 수업료가 무료이나 등록비(교인$30, 외부$40)는 납부 하셔야 하며, 3세 반 수업에는 Deposit $50이 있습니다. 이 Deposit은 한 학기 동안(12주)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면 돌려 드립니다.

4- 수업 시작이 각 과목마다 틀립니다. 꼭 시작하는 날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주 단위의 과목들은 모두 9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5-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아카데미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디렉터 김00

효신 장로교회 부설 효신 아카데미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작은 금액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소아의 경우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신음하는 한인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소규모 유치원과 여름학교 그리고 해피스쿨을 통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효신교회 한글학교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좋은 교

육을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아름다운 교회 한글학교

(1) 설립 취지

아름다운한국학교(Arumdaun Korean School: AKS)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뿌리교육을 통해 우리 2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진 자랑스러운 Korean-American으로서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능력있는 일군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한국학교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역사뿐만 아니라 태권도, 전통공예, 무용, 미술, 음악, 서예, 종이접기, 한국요리등의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사회성과 특기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대학생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성인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운영 방법

"뿌리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해 우리 2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므로써 장차 그들이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랑스러운 Korean-American이 되게 한다"를 학교의 비전으로 삼고 아래의 사항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a) 교사 QT/학생 QT

기도로 준비된 교육과 교사의 영성 향상을 위해 매주 토요일 9시부터 교사큐티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매주 1교시 20분동안 학생큐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 12명 정원제

학급 정원제 (12명)를 통해 학습효과를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c)성인반 운영

시기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놓친 고학년 학생들과 성인들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하므로써 한 학급안에서 학년 차이가 많이나 한국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던 고학년 학생들과 성인들이 한국어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 SAT II 한국어반 운영

한국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SAT II-한국어반을 운영한다.

e) 새로운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교수법을 적용하므로 수준 높은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미한국학교 교사연수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1회 자체 교사연수회를 가지고 있다.

f) 학부모회 활성화

학부모들의 친목과 취미생활을 위한 학부모 전통공예 교실, 스트레칭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3) 운영 프로그램

아름다운 한글학교의 경우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세분화 시켜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효신교회와 마찬가지로 문화프로그램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다.

a) 꼭두각시춤 Korean Traditional Dance

b) 합창 음악반 Chorus Music

c) 종이접기반 Origami

d) 한국무용반Korean Dance 3

e) 태권도반Taekwondo 4-6(남)

f) 전통공예반Korean Crafts

g) 역사/문화반History/Culture

h) 서예반Calligraphy

i) 사물놀이반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Quartet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교회 내의 숨겨진 강사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게 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센터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고 있다.

. Ⅴ.연구과제 시행

1. 연구를 위한 동역자 Site Team 구성

1) 기본 구성방식

각 프로그램별로 팀장을 세우고 그 아래 교사나 강사를 세웠다. 각 팀장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팀장 회의를 통하여 각 팀별 공간의 사용 조정을 스스로 하게 하였으며 각 조직별 경쟁보다는 보완구도로 만들었다. 일예로 한글학교를 등록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더 듣게 해주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하였다.

2) 조직구성

대표- 담당자(총무)- 한글학교팀장
합창팀장(지휘자)
모듬북교실 팀장 (강사)
태권도교실 팀장(사범)
컴퓨터교실 팀장(강사)
뜨개질 교실 (강사)
댄스교실 (중앙일보 문화센터와 협력)

팀별로 각 팀에 맞는 조직을 만들게 하였다. 즉 태권도와 같이 한명의 사범과 보조사범을 아이들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 강사 한명이 전체를 움직이면서 문화센터 중심의 총무나 대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한글학교의

경우 수준에 따라 많은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팀장이 다시 내부조직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2.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1) 합창교실

(1) 운영방향 설정

a) 뉴욕주나목교회 부설 주나목 문화학교에 크리스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Pre-K 부터 12학년) 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 과목을 개설하였다.

b)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기쁨을 맛볼 뿐 아니라 동시에 신앙을 키울 수 기회를 제공한다. 가사와 음률이 아이들의 기억에 더 깊고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c) 올바른 발성법과 호흡법으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든 악기나 노래는 기초가 중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함께 기초를 든든히 다져간다.

d) 성가곡, 합창곡, 동요, 국악 민요 등 다양한 음악을 접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해준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음악성을 크게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 한국의 민요, 동요, 합창곡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국악장단, 한국무용 등도 더불어 배움으로써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데 도움을 준다. 외모만 한국사람이 아니라 정서와 문화적인 접촉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f) 서로간의 하모니를 이루어 가는 합창의 묘미를 통하여 음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 보다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한다.

g) 매 학기 말로 예정되어 있는 주나목 문화학교 발표회와 뉴욕주나목교회

절기행사 특별연주, 양로원, 병원, 타 교회 등의 방문 연주를 통하여 음악의 전문성을 경험하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 제공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실력을 기르고 수준에 맞는 분반을 통하여 각자의 재능에 맞는 보다 발전된 예술적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다. 특별히 기관 방문들을 통한 헌신과 무대 매너는 평생의 자신감을 개발해주고 넓은 세계를 받아들이는 발판이 된다.

(2) 운영진 선정

합창은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수준이 결정된다. 음악 박사학위를 받은 뉴욕주나목교회의 지휘자가 어린이 합창반을 함께 맡아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최상의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반주자는 학부모 중에서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 지원하여 하게 됨에 따라 교회 문화센터의 본래 취지인 폭넓은 참여의 의의를 더 살리게 되었다. 특별히 아이들의 훈련 수준이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못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상되고 진행 될 수 있는 계기가 운영진을 통하여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a) 2012년 봄학기

팀장 및 지휘자: 이가영 (Dr. Ka Young Rhee, D.M.A., Music Director)

반주: 김수영

b) 2012년 가을학기

지휘: 이가영

반주: 전소영

(3) 시간, 장소 셋팅

문화센터 운영을 통하여 평소 금요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석이 어려웠던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요예배시간과 동일 시간에 구성을 하여 진행하였다. 문화센터를 위하여 1층 공간을 모두 렌트하여 문화센터의 중요성을 다

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이는 문화센터 교육관으로 독립시켜 기관의 중심 공간으로서 활용하였다. 합창을 위하여 피아노와 보면대와 의자를 새로 구입하여 구비하였다.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헌금을 통하여 구비된 기구들로 공간을 채워 참여 교인 전체가 문화센터에 더 큰 애정을 가지도록 하였다. 비용은 4개월 한 학기 비용으로 책정하였다. 교재 간식 레슨 등 제반 모든 비용일 포함되어 학부모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맡겨놓는 비용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아이들이 음악활동과 식사까지 배려하는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교회의 이미지가 크게 좋아지고 좋은 소문이 나는 이유가 되었다.

a) 2012년 봄학기

a. 기간: 2012년 2월 3일~5월 25일

b.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6:30~7:15

c. 장소: 뉴욕주나목교회 교육관

d. 등록비용: $80.00

b) 2012년 가을학기

a. 기간: 2012년 9월 7일~12월 21일

b.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5:30~6:30

c. 장소: 뉴욕주나목교회 교육관

d. 등록비용: $120.00

(4) 합창단 명단

a) 2012년 봄학기: 총 20명

a. Soprano: 심규진, 김예은, 김다은, 문예주, 유하나, 박성수, 정마루

b. Mezzo-soprano: 이경호, 박보미, 황세은, 박채연, 홍예진, 지준선

c. Alto: 이지훈, 유하림, 유지현, 유지승, 유지훈, 이지나, 박건률

b) 2012년 가을학기: 총 15명

a. Soprano: 김예은, 김다은, 문예주, 유하나, 박지수

b. Mezzo-soprano: 오민아, 남마야, 박수민, 유지훈, 임우진

c. Alto: 유지현, 유하림, 유지승, 지준선, 박수현

(5) 레파토리

성가곡을 중심으로 한국동요와 민요 그리고 캐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곡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익힘으로서 아이들의 음악성을 개발하고 평생에 남는 레파토리를 만들어 주었다.

a) 2012년 봄학기

a. 성가곡

- 예수께로 가면 (If I Come to Jesus), Arranged by 이현철
- 똑똑똑 (Knock, Knock, Knock) by 조윤희
- 어린이를 위한 모음곡 (Suite for Children), Arranged by Mark Hayes
-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Anonymous

b. 동요

- 겨울바람 by 백순진
- 꼬마 눈사람 by 한용희
- 눈 by 박재훈
- 새싹들이다 by 좌승원

c. 민요

- 도라지 타령, 한국 민요

b) 2012년 가을학기

a. 성가곡

- 마른 뼈들 (Dry Bones) by Dave Jean Perry
- Happy Birthday, Jesus by Carol Cymbala
- Joy to the World/Angels We have Heard on High, Arranged by 이가영
-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Anonymous

b. 동요

- 별 by 이수인
- 징글벨 (Jingle Bells), Holiday Song

c. 민요

- 아리랑, 한국 민요, Arranged by 이가영
- 도라지 타령, 한국 민요

(6) 운영성과

a) 반복해서 성가곡을 부르고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심어 줄 수 있었다.

b) 올바른 호흡법과 발성법을 익혀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c) 친구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노래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d) 영어가 편한 아이들에게는 한국어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어가 편한 아이들에게는 영어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

e) 한글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한글노랫말을 읽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와 통합교육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었다.

f)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고 즐겁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였다.

g) 다양한 발표기회를 통해 무대 경험을 쌓고,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7) 장단점

a) 장점

a. 가사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반복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음악을 익히고 노래를 외울 수 있는 기회였다.

b. 단순히 노래를 배워 합창을 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위해 음악적으로 다듬어나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전문적인 과정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c. 미국의 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음악을 통하여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다.

d. 음악적 수준의 차이, 나이의 차이, 언어의 차이,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서 합창을 통해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e. 부모님들이 어릴 적 배웠던 노래를 아이들이 배우고 함께 부름으로써 부모님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b) 단점

a. Pre-K부터 12학년까지의 나이 차이로 인한 음악적 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정확한 나이와 수준에 따른 분반이 필요하다.

b. 저학년과 고학년 아이들의 음색차이와 변성기에 있는 아이들의 음역차이를 감안하여 선곡하는 것이 쉽지 않다.

c.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의 흥미를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민교회의 가장 큰 숙제다. 이민 온 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한글이 편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어가 편하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글학교와 모든 프로그램이 공유점이 생긴다.

d. 금요일 저녁 시간대가 가져오는 교통체증으로 수업시간의 정확한 운영이 쉽지 않았다. 금요일 시간이 주말의 가장 정체현상이 심한 시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마치고 갈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시작이 쉽지 않았다.

(8) 교회 문화센터로서의 적합성

a) 합창교실의 대상이 크리스챤에 한정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음악과 합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합창교실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b) 합창곡, 동요, 민요뿐만 아니라 성가곡을 선곡하여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자연스러운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c)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음악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과정과 고아원, 양로원 등의 연주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d) 젊은 성가대원과 교인을 찾기 힘든 미국교회 및 미국 내 한국교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어릴 때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른성가대로 편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

e) 아이들이 한글가사로 성가곡과 동요, 민요를 배움으로써 문화와 언어차이에서 오는 교회 안의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9) 차후 기대와 방향

a) 규모가 좀 더 커지면 오디션을 통해 나이별, 수준별로 합창교실을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집중력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b) 발표 기회와 방문 연주 활동 기회를 확대시켜 아이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c) 합창교실에서 성가곡을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연계된 성경공부나 신앙교육을 병행하여 신앙성장과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d) 문화학교와 한글학교에서 운영되는 다른 과목들과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학기별로 주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곡에도 반영한다.

e) 합창 교실에서 나아가, 악기교실과 어린이오케스트라도 함께 운영하여 교회 문화학교를 통해서도 체계적, 전반적, 통합적인 음악교육이 기독교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한글학교

(1) 운영방향 설정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위에 기초하여 한국어를 배우기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은 나이와 국적을 따지기에 앞서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기능을 넘어서는 서로를 알아가는데 좋은 도구로서 한그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모국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는 한편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도록 돕는데 운영의 의미를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에게 고유의 언어와 예술과 문화를 주시고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다. 고국을 떠나온 교민들, 이곳에서 자라는 2세들, 그리고 한인 자녀들에게 조국의 뿌리를 일깨워주고 또한 숨겨진 재능을 발견, 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고자 한글학교를 시작하였다. 한글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한글로 구성된 노래와 춤 등 여러 차례의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 그들의 뿌리인 한국의 춤과 문화를 가르치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것을 알리게 되었다.

(2) 운영진 선정

한글학교 조직 구성은 팀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조직안을 연구하여 만들도록 하였다. 지원한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그리고 선생님의 공급 가능에 따라 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에 맡기었다. 결과 배우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숫자가 조화롭게 이루어졌고 운영에 따른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각 수준별로 충분한 선생님의 확보가 전체적인 운영에 질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 특히 진심으로 문화센터에 대하여 이해하고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하여 아이들의 학습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기본 구성안은 다음과 같다.

표 4 - 한글학교 조직안

2012 주나목 문화학교 원장: 문정웅 목사			
회원 지도 Membership Director	박혜경 전도사	활동 지도 Activities Director	방미리 집사
제품 구입/관리/행정 Purchasing / Information Director	박계련 집사	학부모 회장 PTA	박미영 집사
선생님 Professional Instructors	고현영, 안미희, 박계련, 방미리		

(3) 교육내용

a)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b) 한국의 문화(예절교육 포함), 역사, 사회에 대한 인식

c) 한국의 동요와 민요에 대한 인식

d) 민속놀이, 고전무용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e) 매학기 종합평가로 개개인의 실력을 평가한다.

f) 매학기 학부모 공개수업, 교사 연구수업을 통해 열린 수업을 지향하며 교사들의 연구개발을도모한다.

g) 한글학교 중심으로 하여 문화센터의 각 분야들이 통합적으로 협력하여 태권도, 글짓기대회, 단어 왕 대회, 동요대회, 동화구연대회, 학예발표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와 재능을 개발하며 협동심과 단결력을 길러준다

(4) 시간, 장소 셋팅

한글학교는 다른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금요일 저녁에 운영되었다. 장소는 각 소규모 룸에 배치가 되어 운영되었다. 교재는 중앙에서 공급해주고 각 반으로 흩어져 각자 가지고 온 필기 도구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록 책상과 의자를 제공하였다.

각 반별 장소는 다음과 같다.

표 5 - 한글학교 반별장소표

한글학교 시작	2013년 2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장소	주나목 교육관 101반-초급반 102반-중급반 A 103반-중급반 B 104반-고급반

(5) 모집

a) 일정

반배정 테스트: 2013년 2월 1일 (금요일) 7시30분

교과서 배부: 2013년 2월 8일 (금요일) 6시

봄학기: 2월 초순 ~ 5 월 중순

가을학기: 9 월 초순 ~ 12월 중순

b) 수준별 배치

a.Pre-K / 초급반

1- 한글로 기본 사물 이름 익히기

2- 기초 선긋기를 통해 손 근육을 발달시키고 ,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우기

3- 한글의 기본 자음인 'ㄱ' 에서 'ㅎ' 까지를 익히고 , 단모음을 익히기

4- 기본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가' 부터 '하' 까지 낱글자를 익히기

b.중급반

1- 한글 숫자, 날짜, 시간 익히기

2- 주위의 사물과 개념을 한글로 표현하기

3- 자음 , 모음에 대한 단어형성 익히기

4- 기본적인 문장형태 읽기 쓰기

c.고급반

1-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

2- 문장을 통해 새 낱말, 비슷한 말, 반대말 등의 어휘력 확장

3- 다양한 읽기를 통해 독해능력 향상시키기

4- 말하기, 듣기 및 쓰기등 종합적 한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기

(6) 차후 기대와 방향

주나목 한글학교의 장점은 금요일에 한글학교를 운영함으로 학생들은 한글과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동안 부모님들은 주나목 금요예배를 참석하여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이 함께 효율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매 학기마다 주나목한글 문화학교 주최로 열리는 한국 전래동화 인형극이 열림으로 아이들이한국의 전래동화를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다. 이후로도 한국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개발하고 또한 한글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 및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도록 한다.

3) 모듬북 교실

(1) 운영방향 설정

a) 국악의 전통적인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b) 국악에 대한 아동의 취미와 소질을 계발하고 기능을 신장시킨다.

c) 국악의 심미적 경험을 통한 협동심 및 바람직한 인격 형성 및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2) 운영 방법

a) 전학년에 걸쳐 과목별 주1시간으로 편성한다.

b) 전체 지도를 기본으로 하되 개별지도도 함께 한다.

c) 전체적인 운영을 팀장의 권한 아래 두어 각 반별로 연습을 하고 학기말 콘서트를 통하여 그 실력을 점검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한다.

표 6- 국악반 반별 시간표

2013 문화학교 기독국악반 (어린이반)	
학년	시간
고학년 (4학년 ~ 중학생)	매주 주일 오후 2시 ~ 3시
저학년 (1학년 ~ 3학년)	매주 주일 오후 3시 ~ 3시 45분

2013 문화학교 소고춤반 (어린이반)	
학년	시간
한글학교에 등록된 학생들	매주 주일 오후 2시 ~ 3시

4) 태권도 교실

(1) 운영방향 설정

a) 운동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준다.

b) 평생 사용할 강건한 신체를 소유하게 된다.

c)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2) 실천 목표

a) 예의바른 생활

a. 생활예절의 실천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

b. 협동과 봉사 정신으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

c. 용기와 자신감 넘치는 적극적인 생활 태도

b) 강인한 심신

a. 체계적인 체력 훈련으로 충실한 성장 발달

b. 합리적인 전신 운동으로 균형잡힌 몸매

c. 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강인한 정신력

c) 남다른 특기

a. 세계인으로써 인정 받는 태권도인

b. 폭력과 사고 위험의 극복 능력

c.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돋보이는 리더십

(3) 운영방법

팀장으로서 태권도 사범의 권한 아래 학생들 중에서 경험이 있는 아이들 중에 선발하여 부사범을 조직을 만들어 아이들을 관리하게 한다. 운동을 위한 넓은 장소로서 교육관의 의자를 모두 거두고 시간대를 달리하여 사용하며 태권도 물품으로서 발차기 보조 도구와 아이들은 운동복과 운동화 그리고 접이식 매트를 깔고 운영하였다. 교인 중에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가지고 언제나 도장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범으로 지원을 하여 문화센터 개설의 취지에 맞는 구성과 운영을 하였다.

표 7 - 태권도 반별 시간표

2013 문화학교 태권도반 (어린이반)	
학년	시간
Pre-K ~ 3학년	매주 금요일 저녁 8:00 ~ 8:40

(4) 운영성과

장소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작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의 호응과 운영의 효과가 뛰어났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음을 보았다. 특히 한국 특유의 무술인 태권도를 통하여 한글학교와 한국 무용 등의 일관성있는 프로그

램과의 연계로 한인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로서의 확실한 정체성과 특색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5) 컴퓨터 교실 (포토샵 프로그램 중심으로)

(1) 운영방향 설정

멀티미디어 시대에 뒤쳐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다 더 발전된 기술과 실력을 바탕으로 영향력 있고 시대에 앞선 그리스도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감각을 익히고 특별히 디자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토샵 과정을 개설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교육 내용

a) 디자인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이미지에 대하여 이해한다.
b) 포토샵 프로그램의 기능과 용도를 익힌다.
c) 포토샵 프로그램의 특별한 기능을 익힌다.
d) 예제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한다.

(3) 운영 방법

포토샵 프로그램 자체가 전문가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능이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학교 과제나 프로젝트를 보다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가르쳐주어 먼저 실생활 프로젝트의 성과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을 가르쳐주어 보다 삶의 표현 방법을 폭넓게 만들어 주었다.

표 8 컴퓨터 반별 시간표

2013 문화학교 포토샵반	
학년	시간
5학년, 중고등부	매주 금요일 저녁 8:00 ~ 8:40

(4) 운영 성과

평소에 교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포토샵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한 영화 포스터나 유명한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넣는 방법 등 재미있는 내용의 교육을 통하여 교회가 단순히 지루하고 힘든 곳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첨단 프로그램까지 쉽게 가르쳐주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교회의 여러 가지 디자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익힌 아이들이 봉사자로 헌신 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해야 할 과제를 누구보다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기능을 익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관심이 더 커졌으며 학부모들도 이 교육을 요청하는 등 실제 운영을 통하여 더 큰 효과를 입증하였다.

6) 문화학교의 앞으로의 기대와 방향

주나목교회의 문화학글학교는 앞으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일학교 성장과 질적 향상에 기초가 되었다.
문화학교의 주체는 예수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기초적인 일반 교육의 익힘과 발전은 오직 예수그리도를 위해 쓰임받는 어린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잃으면 안된다. 영적초기에있는 어린이들에게 예수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며, 이 관계속에서 어린이가 지.정.의모든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자신의 삶속에서 실현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나목교회문화학교에서는 앞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양로원을 방문하는 것, 입양한 아이들을 위한 행사,지역 경찰서에서의 행사(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예를 들어 소고춤,모듬 난타북,사물놀이,화관무,,)등등 주나목교회 문화한글학교

에서 아이들이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으로 봉사정신을 갖도록 도울것이며 교회적으로 볼때는 사회참여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이 가능하다.

3. 연구반원 세미나

본 논문을 위한 연구반원은 전원이 문화센터 강사 및 임원이다. 그러므로 연구반원을 위한 세미나와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세미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로 합쳤다.

표 9 - 연구반원 세미나 일정표

기 간	연 구 활 동	강 의 내 용	비 고
9월 24일 토요일	1차 세미나	1.교회문화센터의 의미? 2.문화센터 운영의 목적? 3.문화센터의 대상? 4.교회문화센터의 특징?	
10월 22일 토요일	2차 세미나	5. 성경적 문화의 의미 6. 시대별 문화의 의미 7. 포스트모던 문화 속의 교회문화의 현실 8. 교회의 문화적 역할	
11월 26일 토요일	3차 세미나	9. 교회문화센터의 역할 10. 교회문화센터의 실예 11. 교회문화센터의 약점 12. 교회문화센터의 강점과 필요성 13. 기대효과 분석	

4. 문화센터 운영 회의

1) 기획 회의

표 10 - 기획서 구성표

기 획 서 구 조	
1. 표지	③ 콘셉트 설정
2. 목차	④ 대상자 선정 및 분석
3. 기획 개요	6. 프로그램 계획
4. 상황 분석	7. 운영진 선정
① 환경 분석	8. 예산계획
② 문제 분석	9. 스케줄 정리
5. 운영 계획	10. 예산 계획
① 정성적 목표 수립	
② 정량적 목표 수립	

2) 프로그램 회의

각 팀별로 먼저 운영 프로그램의 강사와 시간과 규모를 결정하고 진행한다. 각 팀장이 모여 프로그램 회의를 통하여 소규모 반과 대규모 반의 예상을 하고 각 팀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여 차량 운행 등을 고려한 자세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최종회의

1차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의 호응도 확인
각 프로그램의 시간 배분 확인

2차 중간평가 - 프로그램의 지속력 확인
프로그램의 세부 완성도

3차 최종 반응평가 - 객관적 평가 및 최종 보완을 통해 실수가 없도록 한다.

4) 평가회의

a) 목표 및 평가 : 목표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b) 부족했던 것 : 차후 운영을 위하여 결과에 대한 보완점을 파악한다.

c) 좋았던 것 :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문서화 한여 다음 교육프로그램에 삽입한다.

d) 간단한 질문을 통해 다음 진행사항에 추가사항 체크: 아래의 표와 같이 학부모와 프로그램 참가자 중 직접 기입이 가능한 설문조사를 한다.

e) 설문조사 내용

a.교회 문화센터는 누구에게 꼭 필요한가?

초등학교 이하 (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고등학교이상( )

b.문화센타를 어디서 들었는가?

친구( ) 부모( ) 지역소식지( ) 인터넷( ) 홍보지( )

c.문화센터에 처음 오게된 동기?

부모의 강요( ) 스스로( ) 친구만나러( ) 성공하기 위하여( )

심심해서( ) 가격이 싸서( )

d.문화센터에 계속 참여할 것인가?

참여할 것이다.( )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 반반이다.( )

e.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는?

음악 ( ) 미술 ( ) 언어 ( ) 댄스 ( ) 뜨개질 ( ) 퀼트 ( )

그 외 ( )

5) 회의를 통한 성과

각 회의를 통하여 문화센터의 운영상태를 보다 확실하게 점검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를 통하여 서로가 보완해줄 것과 요청 사항 등

을 파악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다. 특히 각 프로그램 간의 운영 시간을 조정할 때에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차량 운행과 귀가 시간 조절 등이 원할 하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하여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권유해 줄 수 있었으며 회의를 통하여 보다 많은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도 큰 도움이 되었다. 문화센터를 하나씩 완성해 가면서 보다 많은 교회에게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는 것도 회의를 통하여서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

Ⅶ. 연구과제 평가

1. 의식 변화 평가

1) 설문조사 분석 내용

본 연구는 2012년 1월에서 2012년 12월까지의 문화센터 및 교회 전반에 걸친 문화 의식 변화를 시도하고 평가하였다.
첫째는 뉴욕 주나목교회의 세대간의 문화 의식변화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세대간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영어권에서 자란 아이들과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의 괴리감은 반드시 극복해야할 숙제이다. 결국 세대간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조사하여 평가한다.
둘째는 가족의 의식변화이다. 한인 교회는 특히 할아버지 세대에서 시작하여 손주에 이르기까지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의식변화 평가를 통하여 원할한 문화적 소통에 대한 평가는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한사람이 아닌 한 집안의 일가 친척까지 나오지 않는다. 가족 안에서의 세대간 문화적 의식이 소통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가족간의 문화적 동일 관심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하는 부분이기에 이를 평가한다.
셋째는 각 세대 내에서의 의식변화를 평가한다. 이미 성별과 나이를 통하여 공동체를 묶어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 될 것이다. 특별히 동일 세대 사이에서도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 따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이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사역이 필요하며 이를 문화적 도구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만들고 사명을 찾아내는 것을 통해 동일 세대 내의 갈등 구조를 이해와 사랑의 구조로 만든다.

넷째는 지역사회에 의식변화를 평가한다.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그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지역 의식 변화를 기대한다. 이는 다양한 세대 간 문화 접촉이 일어나고 보다 폭넓은 관계가 교회의 공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실제적인 지역사회 공헌 정도의 척도가 되것이다. 다섯째는 교회의 문화 의식의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결국 목표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회원에 대한 실제 문화 의식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가 아닌 선별의 안목을 가지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 의식 변화가 기대된다. 문화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 의식의 향상을 기대한다.

2) 연구과제 수행의 한계

시간적으로 처음 시작하다보니 보다 폭넓은 자료 구성보다는 계획과 실천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파악하게 되었다. 기존의 운영되던 인력이 없이 처음으로 구성하다보니 작은 교회에서 일이 집중되어 중간에 교체가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상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2. 행동 및 실천 변화

1) 연구과제 수행이후의 변화

(1) 개인의 신앙의 변화

첫째 예배에서 특히 설교와 찬양 순서에 있어 문화적 도구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문화적 이슈들이 성경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느끼도록 한다. 성경적인 중심점은 잃지 않되 탁월한 문화적 도구들을 설교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둘째 가족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을 교회에서 제공함으로서 문화적인 공감대와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을 제공한다. 내적인 결속력이 없이는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가 없다. 탁구대를 사서 운동프로그램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시즌 별로 가족 대항 시합을 통해 건전한 동기로 가족이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분주한 세대 속에서 교회가 실천한다.
셋째 어린 세대를 시작으로 각 세대별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영적 가치관을 전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식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한다. 세대별로 또한 관심별로 다양하게 진행하여 각 프로그램 마다 특성을 살려주고 또한 이것이 갖는 장점들을 잘 실행한다.
넷째 예배 자체에도 문화적인 요소를 수용하여 보다 집중력 있게 실천한다. 예배의 구성 요소는 설교만이 아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한 다양한 순서들이 있다. 이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행함으로서 믿지 않는 지역 사회 주민들이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성악 발표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절기에는 준프로 합창으로 음악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실천한다.
다섯째 주일 예배 후 전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한 달에 1회 이상 실천한다. 문화적인 소통이 전 세대에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부분적 문화의식 변화가 아닌 전체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먼저 내부적으로 세대간의 소통을 통하여 전세대 문화 의식의 변화를 실천한다.
여섯째 양로원 방문 등 지속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사랑과 나눔의 활동을 진행하여 실천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실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감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한결 같은 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2)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타종교를 믿고 기독교를 전혀 모르던 학부모가 이것을 계기로 기독교에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하나씩 알아가기를 원하다가 결국 교회의 회원까지 되었다. 물론 지

역사회에 이미지를 위한 것과 교회의 헌신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교회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다.
교회를 떠난 젊은 세대들이 돌아왔다. 각자의 분주한 삶을 깨기 원하지 않던 젊은 이들이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 특히 종교적인 갈등으로 문제를 겪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평안을 회복하게 되고 이에 대한 감사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 교회 부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 일어난 일을 서술하자면 집안에 불교와 및 무교 등 종교적인 번민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학부모가 아이를 위해 문화센터에 참가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또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사고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의 변화와 함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이는 교회로서도 좋은 일이지만 본인에게도 몇 년간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풀리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 혹은 교회의 부흥을 전면으로 내세운다면 이러한 일은 너무나 의도적인 일이 되고 말겠지만 문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도록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종교적 내용을 강압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헌신된 기관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결국 기독교의 본질 회복이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 되는 통로로서 문화센터의 가치를 더 느끼게 된다.

3. 구조 변화

1) 개인 관계구조의 변화

첫째 설교에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보다 세대간의 문화의 차이를 성경적인 내용과 문화의 도구를 통하여 어른 세대부터 아이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행사부서를 독립적으로 만든다. 문화 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가진 재능과 또한 준비된 문화적인 도구들을 즐겁게 실행되도록 한다. 특히 행사에 쓰이는 특별 순서의 경우 질을 높여 전체적으로 예술적 수준과 가치를 창조해낸다. 이는 문화 예술의 중심이 중세 시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줌으로써 문화적인 접근이 새로운 것이 아닌 교회에서 해야하는 부분임을 더욱 선명하게 알리는 구도를 만든다.

셋째 문화학교를 신설한다. 문화학교를 통하여 재능 있는 성도들이 이를 배우거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사교육이 비싸지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등은 실제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평소 노인 들이 가르치거나 배우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린다.

넷째 예배 준비 위원과 교회 전체의 리더 그룹을 형성함에 있어 40대 이상 어른뿐만 아니라 30대 젊은이들도 참여시킨다. 기존의 교회가 어른들은 결정하고 젊은 이들은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이를 역으로 다양하게 수용함으로써 한쪽 세대에 치우침 없이 골고루 의견을 내고 실천 방안에 세대별 문화적인 내용이 포함되게 한다. 다양한 취향과 환경에 맞는 만족도를 연구하여 실행한다.

다섯째 문화 센터 운영시 외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든다. 기존에 잘 진행되는 기관과 연계하여 교회에서 운영이 가능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사회와 격리된 소수 종교 집단이 아닌 함께 어우러져 선을 베푸는 구조로 만든다.

여섯째 양로원 방문 등 봉사 활동에 있어 어른이 가면 젊은이와 어린이가 가는 구조가 아닌 문화 센터와 어린이 부서가 먼저 가면 이를 어른 들이 협력하는 구조로 바꿈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에 접촉하는 구조를 만든다. 특히 과열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으로 인하여 인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시대에 문화적인 도구를 통한 봉사 활동은 어린 시절부터 지식과 인성이 균형감 있게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 교회구조의 변화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처음에는 지원하며 시작하였다가 완전히 독립하였다. 재

정과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내 외부기관이 생겼다. 문화센터는 처음에는 교회에서 재정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부담을 안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작하고 한 학기 운영 만에 독립이 되고 오히려 독립 부서로서 교회에 좋은 이미지와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어른 들이 아이들의 변화를 통하여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일예로 한 권사님이 왜그렇게 시끄럽냐고 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전체적인 문화센터의 분위기가 침체되었다. 그러나 꾸준히 운영해가면서 구조적인 변화 속에 아이들의 실제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자 달라졌다. 이제는 오히려 이러한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 일도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이다.

Ⅷ.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

1.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문화적 설교 방법론 개발

교회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데는 교우들과의 정확한 비전 공유와 타당성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로 설교를 들 수 있다. 설교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 전체의 공감대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설교 내용 중에서 복음적인 내용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교회가 감당해야할 문화적인 비전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경 중심의 초점 설교

설교가에게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성경에 근거하여하는가 이다. 이를 위하여 성경읽기표를 만들고 그 스케줄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한다. 실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모든 새벽예배 설교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성경중심의 초점 설교에 대한 감각을 키운다.

2) 논리적인 스토리 전개 방식

모든 설교에 있어 스토리 텔링방식으로 한다. 그러나 이야기가 흐르듯이 초점을 잃지 않도록 앞의 방법과 같이 연관성 있는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인 전달 훈련을 한다.

3) 다양한 미디어 사용

현대 설교에 있어 설교단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방법은 다양한 영상과 음향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 특별히 교회에 갖춰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겨울에도 여름을 보여줄 수 있고 지붕 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더 폭넓은 설교를 한다.

4) 정확한 발음 구사

오래 설교하는 것보다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발음 훈련을 매일 새벽마다 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한다.

5) 풍부한 성서 배경 지식

성서 지도 및 주석을 참고하여 각 성경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파악하고 전달하는 모든 내용의 기초 지식을 새벽마다 익힌다. 이는 모든 성경을 새벽마다 성경읽기표에 의하여 전달함으로써 가능하다.

위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게 생각하고 실행한 결과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실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성도들도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형성되어 사역에 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로 문화적인 비전의 근거로 성경적인 근거로 지중해 연안의 나라로서 예수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실 당시 어부와 배 그리고 바다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그 지역과 문화와 환경과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 하셨음을 증거 하였더니 더 이해도가 빨라지고 호응이 많아졌다.
둘째로 이를 전달할 때 이야기 전개 방식을 통하여 딱딱한 이론이 되지 않게 하였더니 설교에서 졸거나 지루함이 없이 집중력이 높아졌다.
셋째로 어려운 지명이나 성막 등 상상으로 생각해내기 어려운 부분은 프로젝트에 준비된 사진과 영상을 통하여 문화적인 도구들의 활용을 통하여 더 쉽게 설명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넷째로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함으로서 교인들의 이해에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니까 더욱 명료하게 이해했다는 감사의 표현을 들을 수 있었다.
다섯째로 성경 읽기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다루되 이스라엘 지도에 나타난 특징과 배경 지식들을 전달함으로써 문화적인 내용에 흥미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매일 새벽마다 이러한 관점을 놓지 않고 증거 하였더니 결국 성도의 대부분이 교회의 특징으로 문화센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설교를 통한 비전 전달과 성경적인 사역의 진행 모두를 효과적으로 개발 할 수 있었다.

2.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문화적 전문지식 계발

1) 문화 전문지식 개발:

목회자가 갖기 쉬운 가장 큰 오류는 잘 모르면서 가르치는 것이다. 문화 사역자들을 다루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음악과 미디어 분야는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 이에 대한 공부를 한다.

2) 문화 전문인 네트웍 형성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해낼 수 없다. 이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한한 시간의 제약성 때문이다. 그럼으로 각자가 해 낼수 있는 문화 네트웍을 형성하여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네트웍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바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3) 다양한 기관 운영 경험

문화 센터와 전문 공연 등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공간활용과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목회적

역량을 높인다.

4) 문화 집회를 통한 공헌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집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을 기쁘게 한다. 특히 소외된 노인과 아이들에게 좋은 공연을 통하여 즐거움과 꿈을 준다. 이는 말만이 아닌 실제적인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하여 교회 인지도도 높아진다.

5) 새로운 문화적 접근법 개발

영상 음향 뿐만 아니라 각 예술의 독특성을 살려 창조적인 방법과 진행을 개발한다. 집회에는 문화적 요소로 영상과 음악만 있는 기존의 틀을 깨고 현대 퍼포먼스나 컴퓨터 기계 장치를 활용한 혁신적인 방법등도 모색하여 이를 목회에 적용한다.

위의 사항들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은 이제 계속되는 연구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하나씩 노력함으로써 이를 통한 목회적인 역량의 증가를 기대한다. 특히 기관으로서 문화센터의 운영의 기술과 경험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끈질기게 이어나갈 것을 교회적으로 당부하고 진행하고 있다.

첫째로 문화적인 서적들을 함께 읽고 특히 성경에 나타난 문화적인 내용에 대하여 서로 의논을 나누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 교회의 사람들만으로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른 교회와도 문화적인 공연과 건전한 기독교 문화 세우기 네트웍을 실행할 것이다.

셋째로 다양한 방식의 기관으로 적용하여 단지 문화센터에 머물지 않고 복지와 교육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발과 언론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운영을 모색한다.

넷째로 어린이 극장을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무대를 개발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

다섯째로 모든 것을 진행함에 있어 세상의 기술과 문화에 대하여 선별적이지만 적극적인 수용을 통하여 현대 문화에 뒤처지지 않는 기계와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 어린이 극장을 운영하여 노하우를 쌓을 것이다.
실행 목표는 2013년으로 잡고 겨울 크리스마스 공연을 통하여 매년 발전을 체크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한 목회적인 유능성이 더 배가 될 것을 기대한다.

3.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영적 멘토링 자질 계발

1) 성경 묵상집 출간:

성경 전체의 내용을 365일 코스로 매일 묵상하여 묵상집을 만든다. 이는 개인의 영성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책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이룬다.

2) 새벽 예배를 통한 새벽 영성

매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림으로서 영적 멘토로서 기호하는 이미지와 실제 중보기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3)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인 관계 형성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성도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직접 느끼고 함께한다.

4) 절제와 사랑의 실천 및 권면

공평성을 잃지 않고 모든 성도에 대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한다. 특히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온전히 목회적인 기준으로 사랑과 권면을 통하여 성도의 영적

성장을 꾀한다.

5)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증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비교하고 지치기 쉽다. 이에 하나님 중심의 종말론적 가치관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온전히 찾아낸다.

이를 위하여 매일 마다 365일 코스로 묵상집 내용을 만들었다. 출판사와 계약 단계에 있고 박사 이후 출판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영향력을 기대한다. 그리고 새벽 예배의 소중함을 교회적으로 선포하였다. 문화센터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교회의 영적인 부분이 흔들림 없도록 실천한 것이다. 특히 새벽 시간에 중보기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하는 비전임을 느끼게 되었다.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더욱 깊이 느끼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문화센터도 교회의 운영차원이 아닌 교회의 사명으로서 그 의미를 찾고 진행해 나가는 것임을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느끼고 함께 하게 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목회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문화센터가 활용되고 목회적 유능성이 개발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IX. 결론

교회의 문화센터는 교회에 큰 힘이 된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서로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문화센터이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해져가는 시대에 투명하고 효과적인 문화센터의 운영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거나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작게라도 하나씩 시작하면 그것을 통하여 얻어지는 많은 효과들을 볼 수 있다. 뉴욕주나목교회는 개척하여 1년 반이 되는 때부터 문화 센터 사역을 구체화시킴으로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교회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었다. 강의자는 강의자대로 봉사의 기회가 되고 아이들은 낮은 가격으로 평소에 부담이 되어 배우지 못하였던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양쪽이 다 만족하였다. 시작 할 때의 기대보다도 더 큰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외국인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효과를 많이 보았다. 외국인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한인교회의 문제점을 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함께 참여를 유도하여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주나목교회는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감동하였고 오히려 좋은 관계의 계기를 만들었다. 문화센터가 끝날 때 발표회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모두 놀라움을 표현하며 좋은 인상을 가졌다. 문화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도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직접 운영을 통해 알았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태도의 문제 역시 많이 개선되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의 경우 더 심한 경우가 많았지만 문화센터를 잘 운영함으로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 세상의 문화를 쫓아갈 수는 없지만 모르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과 단절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센터는 각 세대 간의 통로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였다. 교회 내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에 부담을 덜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미있게 교회생활을 하는 아이들 덕분에 가정에 대화가 회복되고 함께 배우는 노력을 통하여 가정의 화목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문화센터는 선택의 문제로 놓기 보다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보고 할 까 말까의 고민 보다는 실행을 하되 어떻게 할 까의 문제로 놓는 것이 교회와 지역 사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 지역과 사람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후에 더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서로 교류가 된다면 교회와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후의 연구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각 교회의 상황에 따른 연구 그리고 지역 사회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추가 되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X. 부록(Appendices)

부록1- 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팀장수련회

2012년 뉴욕주나목교회 문화학교 팀장수련회

프로그램:

이　　름:

미국장로교회 뉴욕주나목교회

수련회 일정

일

시 간	프 로 그 램	담 당 자	비 고
pm 8:00-8:30			
pm 8:30-9:00			
pm 9:00-10:00			
pm 10:00-11:00			
pm 11:00-12:00			
pm 12:00	자유시간 및, 잠자기 광고 / 나승욱 음영팀장		

일

시 간	프 로 그 램	담 당 자	비 고
am 7:00			
am 8:00			
am 9:00			
am 11:00			
am 12:00			
am 4:00			
am 5:00			

조직도

역할	이름
총괄팀장	
한글학교 팀장	
태권도 팀장	
합창 팀장	
컴퓨터교실 팀장	
모듬북 팀장	
소고춤(댄스) 팀장	

안내문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주나목교회의 G.S.(Good Seed)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양로원방문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23일(토요일)에 저희 문화학교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Long Island에 있는 한국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지금까지 배운 노래를 부르게됩니다.

총연습 날짜: 2012년 6월 22일 (금요일)
총연습 시간: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 6월 22일에는 한글학교가 종강을 하게되며 한번도 빠지지않은 학생들에게는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며 간단한 종강 파티도 하게됩니다.

공연 날짜: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공연 시간: 오전 10시
공연 장소: 롱아일랜드 한국요양원
(A Holly Patterson Extended Care)
875 Jerusalem Avenue Uniondale, NY 11553
문의 전화: (516) 439-4333 (Fax 겸용)

**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미주장로회 소속인 주나목교회에서 Certificate이 증정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들 복장은 상의는 흰색 / 하의는 검정색입니다.

주나목 교회 모듬북 교실 신청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나목 교회에서 모듬북교실을 여름방학동안
열게 되었습니다.

대상: 4학년 이상 6명이 한 팀 구성
1-3학년(저학년) 7명이 한 팀 구성

강의내용:모듬북 (국악난타)
북을 이용해 국악 장단을 익히고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멋진 가락을 연주하는 수업
수강료: 8회
(고학년)$180(90분 수업)+ 악기 대여료($20)
(저학년)$120(40분 수업)+ 악기 대여료($20)

수업시간:
7시부터 7시 40 분까지 저학년을 위한 모듬난타
8시부터 9시 30 분까지 고학년을 위한 모듬난타

기간: 7월 6일부터 8월22일(매주 금요일 오후)

수강신청마감일: 6월 24일까지 (금요일)

학생 이름	
학생 생년월일	
보호자 이름	
보호자 전화번호	
보호자 집주소	
E-mail	

부록 4- 문화학교 발표회 초대장

초대의 글

할렐루야!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별이 내리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주나목교회의 G.S. (Good Seed) 문화학교와 한글학교도 부모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어느덧 첫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5월4일에 저희 문화학교와 한글학교 아이들의 발표회가 있습니다.지금까지 쌓아온 실력들을 발휘하여 그동안 멋진 학예 발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머님,아버님,할아버지, 할머님 그리고 가족 모두가 오셔서 자랑스런 우리 자녀들의 발표회을 오셔서 꼭 보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짜: 2012년 5월 4일 (금요일)
시간: 저녁 8시
장소: 주나목교회 친교실(2층)
1901 Northern Blvd.
Manhasset, NY 11030
문의전화: (516) 439-4333 (Fax 겸용)

한글학교와 문화학교 학생들은 오후 6시30분부터
총연습을 하오니 평상시처럼 교회 van 이 운행할것입니다.
연습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저녁식사가 제공될것이며
가족분들을 위한 간단한 다과가 준비될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한글학교 각반 계획서 샘플

주나목 한글학교 각반 계획안

초급반 / 중급반Ａ / 중급반Ｂ / 고급반

선생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교제 진도	내용	Activity	행사
2012 - 2 - 3				
2012 - 2 - 10				
2012 - 2 - 17				
2012 - 2 - 24				
2012 - 3 - 2				
2012 - 3 - 9				
2012 - 3 - 16				
2012 - 3 - 23				
2012 - 3 - 30				
2012 - 4 - 6				
2012 - 4 - 13				
2012 - 4 - 20				
2012 - 4 - 27				
2012 - 5 - 4				
2012 - 5 - 11				
2012 - 5 - 18				
2012 - 5 - 25				
2012 - 6- 1				
2012 - 6- 8				
2012 - 6- 15				
2012 - 6- 22				
2012 - 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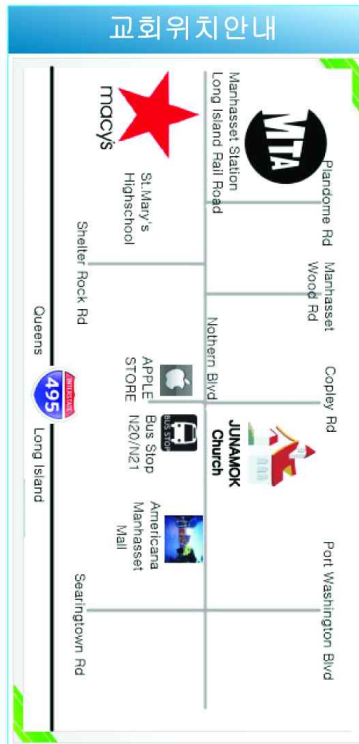
부록 6

주나목 한글학교 주요 행사 계획

초급반 / 중급반Ａ / 중급반Ｂ / 고급반

선생님: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화구연 대회
- 시, 편지 쓰기
- 어린이 기독 신문 발간

부록 7- 행사 디자인 샘플 1

예배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2부 오후 12시 30분

어린이 주일예배 오전 12시 30분

청년부예배 오후 2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6시 (월-금)

부록 8 - 한글학교 등록 봉투

안녕하세요.

어느덧 4주가 지났습니다.

____________ 부모님, 우리 주나목 한글학교를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 학생의 등록비 봉투를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날짜를 확인하여 주시고 매월 첫째주에 등록비를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주나목 한글학교 드림 -

	2012년 2월	2012년 3월	2012년 4월	2012년 5월	2012년 6월
Due Date					
Amount					
Signature					

안녕하세요.

어느덧 4주가 지났습니다.

____________ 부모님, 우리 주나목 한글학교를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 학생의 등록비 봉투를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날짜를 확인하여 주시고 매월 첫째주에 등록비를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주나목 한글학교 드림 -

	2012년 2월	2012년 3월	2012년 4월	2012년 5월	2012년 6월
Due Date					
Amount					
Signature					

안녕하세요.

어느덧 4주가 지났습니다.

____________ 부모님, 우리 주나목 한글학교를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 학생의 등록비 봉투를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날짜를 확인하여 주시고 매월 첫째주에 등록비를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주나목 한글학교 드림 -

	2012년 2월	2012년 3월	2012년 4월	2012년 5월	2012년 6월
Due Date					
Amount					
Signature					

부록9 - 한글학교 신청서 내용

우리 주나목교회 한글학교의 교육목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위에 기초하여 한국어를 배우기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계 미국인이기에 앞서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모국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는 한편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도록 돕습니다.

주나목교회 한글학교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한글, 한국의 역사, 한국 고전무용, 한국의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한국학교가 운영됩니다.

한글학교 시작: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30분

등록 대상: Pre-K 부터 6학년 까지

등록 마감: 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까지

등록 비용: 한학기당 $150 (5개월치, 매월 교재비 $30 포함되 있슴)

반배정 테스트: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7시30분

교과서 배부: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6시30분

봄학기: 2월 초순 ~ 6 월 초순

가을학기: 9 월 초순 ~ 1월 초순

1.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2.한국의 문화(예절교육 포함), 역사, 사회에 대한 인식

3.한국의 동요와 민요에 대한 인식

4.민속놀이, 고전무용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5. 매학기 종합평가로 개개인의 실력을 평가한다.

6.매학기 학부모 공개수업, 교사 연구수업을 통해 열린 수업을 지향하며
교사들의 연구개발을 도모한다.

7.글짓기대회, 단어 왕 대회, 동요대회, 동화구연대회, 학예발표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와 재능을 개발하며 협동심과 단결력을 길러준다.

믿음반 (초급반) - 방미리 집사님

1. 한글로 기본 사물 이름 익히기
2. 기초 선긋기를 통해 손 근육을 발달시키고 ,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우기
3. 한글의 기본 자음인 'ㄱ' 에서 'ㅎ' 까지를 익히고 , 단모음을 익히기
4. 기본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가' 부터 '하' 까지 낱글자를 익히기

소망반 (중급반) - 이정현 집사님

1. 한글 숫자, 날짜, 시간 익히기
2. 주위의 사물과 개념을 한글로 표현하기
3. 자음 , 모음에 대한 단어형성 익히기
4. 기본적인 문장형태 읽기 쓰기

사랑반 (고급반) - 최미정 집사님

1.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
2. 문장을 통해 새 낱말, 비슷한 말, 반대말 등의 어휘력 확장
3. 다양한 읽기를 통해 독해능력 향상시키기
4. 말하기, 듣기 및 쓰기등 종합적 한국어 구사 능력을 키우기

학생 이름	
학생 생년월일	
보호자 이름	
보호자 전화번호	
보호자 집주소	
E-mail	

** 신청서는 방미리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Bibliography

1. 번역서

Adams, E. Jay. *기독교 상담 교본.* 김용순 역, 서울: 보이스사, 1982.

Anthony, Giddens.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3.

Benner, G. Davie. *전략적 목회 상담.* 이정기 역, 부천: 예영 B&P, 2005.

Brother Lawrence.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윤종석, 서울: 두란서원, 2004.

Bosch, J. David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장훈태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Clowney, Edmund P.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David A, Seamnds. *상한 감정의 치유*. 서울: 두란노, 2009.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Don, Tapscott.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허운나 역. 경기 안양: 도서출판 물푸레, 2000.

Drane, John *성경의 탄생.* 서희연 역, 서울: 옥당, 2011

Ed, Dobson.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박혜영, 김호영 역. 서울: 홍성사, 1998.

Gary R, Collins.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정동섭역. 서울: IVP, 1998.

Gary Smalley, John Trend. *사랑언어 그림언어.* 서원교 역. 서울: 요단출판사,

Huntington, Phillips Samuel & Harrison, E. Lawrence *문화가 중요하다.* 이종인 역, 서울: 김영사, 2001.

Ilion, T.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Johns, M. Roide. *회심: 심리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이정선역. 서울: 생명의 샘, 1994.

Küng, Hans.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Lingenfelter, Sherwood *변화하는 기독교문화.*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Mackay, John. *에큐메닉스-세계교회운동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Richard, Helmut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07.

Schaeffer A. Francis *기독교철학 및 문화관*. 생명의말씀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Sanders, J. Oswald. *Spiritual Leadership.*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Tenny, Tommy *하나님의 관점*. 이상준 역, 서울: 토기장이, 2005.

Winkler, Eberhard *실천신학 개론*. 김상구,김성애, 윤화석, 최광현 역, 서울: 문서선교회, 2004.

Wise, Carol. *영혼을 돌보는 목자*. 이승기 역, 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8.

White, F. James.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쿰란 출판사, 1997.

2. 국내도서

권수영, 김필진, 박노권, 박민수, 신명숙, 안숙모, 이관직, 이정기. *목회상담입문.* 서울: 도서출판 목회상담, 2007.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김명혁. *한국 교회 쟁점 진단.* 서울: 규장, 1999.

김상근. *선교학의 구성요건과 인접학문*.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김성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1998.

김세광. *예배의 역사와 그 발전.* 서울: 장신논단 제6집, 1998.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청하, 1991, 102.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프리셉트, 2000.

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1.

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박노권. *목회상담학*. 대전: 세종문화사, 1999.

박원근. *목회심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8.

방선기. *대중문화도 거룩해질수 있는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주의 실천신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송두율. *現代와 思想.* 서울 :한길사, 1990.

양낙흥. *한국 기독교 사회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8.

오세인. *영상매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이상훈. *문화로 엿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문화*.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3.

이중택. *예배와 교회음악*. 서울: 예찬사, 1991.

이형기 외. *기독교 사상사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이호선. *노인상담.* 서울: 한지사, 2005.

장성배. *글로벌 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서울: 성서연구사, 2001.

정일웅.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룬, 1999

정정호. *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서울 :도서출판 터, 1989.

3. 논문자료

김영한, *21세기 포스터 모더니즘과 기독교.* 서울: 숭실대 한국 기독교 문화 연구소, 1995.

4. 정기 간행물

김기영. *미국 교회의 구도자 예배의 현황과 흐름, 목회와 신학 통권94호.* 서울: 두란노, 1997.

송인규. *이민교회 이야기, 빛과 소금, 제59호.* 서울: 두란노서원, 1990.

5. 참고 사이트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http://missionlife.kukinews.com

위키페디아, http://en.wikipedia.or